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80.34	↑ 코스닥	712.89
	(+12.02)		(+1.14)
↓ 금리 (미국 9년)	3.248	↓ 환율	1232.10
	(-0.142)		(-5.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 /소방청

1년간 산업현장 사망자 644명 처벌은 0건

처벌 없는 중대재해법

예방법으로 개정 추진

50인 이상 사업장 256명 사망

전년 보다 되레 8명 늘어나

산재예방·감축 실효성 의문

모호한 기준에 혼란만 가중

처벌 위주 명칭도 부정적 인식

‘예방’ 용어 넣어 기준 등 개편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범명부터 바뀔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명칭이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을 주는데다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란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를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노사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용어, 처벌 기준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

은 11건뿐이다.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와 달리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총 6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39명(5.7%) 감소에 그친 셈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했는데 전년(248명)보다 되레 8명(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DL이앤씨, HDC 등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20명)보다 5명 늘었다.

아직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도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53.0%)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 등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했다.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과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모호한데 처벌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4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外人 매수에 코스피 9거래일 연속 상승

‘1월 효과’ 꿈꾸는 개미들

18일까지 외국인 3.4조 순매수

특별한 이벤트·펀더멘털 없어

전문가들 “보수적 투자” 주문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기분 좋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통상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초입의 반짝 장세로 보며 오히려 보수적 투자 관점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5면〉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4.70

포인트(0.20%) 오른 2373.5에서 장을 마쳤다. 지난해 연말에는 2200대에서 마감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장중 한때 2180.67내리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는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지난 16일에는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230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상승세의 배경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모으면서 수급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초 이후 이날까지도 코스피에서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8일까지 총 3조4692억

원을 순매수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3조1819억원치를 팔면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장 초반 하락했지만 오후부터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전일 대비 상승한채 마무리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라면서도 “상승 요인은 특별한 이벤트나 펀더멘털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혼자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일 종가 대비 800원(1.32%) 오른 6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면에 계속〉

/이영석 기자 ysl@



귀성길 오르는 시민들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BNK금융 차기 회장에 빈대인 前은행장 확정

BNK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빈대인 전(前) 부산은행장(63·사진)이 내정됐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모처에서 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모(63) 노티인베스트먼트 부회장, 빈전 부산은행장, 안감찬(59) 부산은행장 등 3명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상대로 심층 면접을 했고 빈 후보자를 차기 회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관련기사 8면〉

1960년생인 빈 전 행장은 1988년 부산은행 입행해 북부영업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부행장보), 신금융사업본



부장(부행장), 미래채널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부터 3년여간 부산은행장을 지냈다.

빈 전 행장은 경남 남해군 출신이다. 부산 동래원예고, 경성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BNK금융그룹 내 파벌논란에서 자유롭다는 평을 받고 있다. BNK금융은 이장호, 성세환 전 회장 등을 거치면서 출신학교(부산상고와 부산대, 동아대)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됐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임추위 위원들은 빈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

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 경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지방은행 최초로 모바일 전문은행 ‘썸뱅크’를 출시하며 디지털 금융을 주도한 바 있다.

또 지난 2017년 성세환 전 회장의 주가 조작 논란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며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다는 게 내부의 평가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건강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23일~24일자 신문 쉽니다.



▲尹, 다보스 ‘한국의밤’ 참석… “인류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 /사진 뉴시스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세금 감면도”

▲김기현, 경기 당협위원장 30여명과 만찬… 43명 지지 결의

▲이재명, 방공부대 장병에 “더 나은 치우·환경 만들 것”



▲민주, 전대 앞둔 與에 “분열 막장드라마… 국민 외면할 것”

▲보수텃밭 대구 서문시장 찾은 안철수 의원 /사진 뉴시스

대출금리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혜택 늘린다

‘예대차 확대’ 소비자들 불만에
주담대·전세자금대출금리 인하

KB국민 26일부터 최대 1.3%p ↓
우리 우대금리 확대 가산금리 낮춰
신한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고 중도상환금을 면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시장금리도 안정화되고 있어 대출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p) 낮춘다.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05%p, 신잔액코픽스는 최대 0.75%p 인하한다. 신규코픽스와 신잔액코픽스는 변동형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내용〉

/각 사

은행	금리혜택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코픽스: 최대 1.05%p, 신잔액 코픽스: 최대 0.75%p ↓ 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03%p ↓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0.9%p ↓
우리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신규코픽스 기준 0.7%p ↓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0.08%p ↓ 농업인청년대출 각각 0.5%p 우대

준거로 삼는 지표다. 지난 17일 신규코픽스가 하락해 대출금리에 반영했지만, 한차례 더 낮췄다는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KB전세금안심대출은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03%p,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0.9%p 낮춘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내린다. 우리은행은 주택·주거 오피스텔 담보대출시 급여·연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WON뱅크업 1회 로그인시 우대금리를 0.3%p 추가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조건 충족 시 0.2%p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은 가산금리를 조정해 변동금리(신규코픽스 6개월)를 이용할 경우 0.7%p를 인하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와 가산금리 조정으로 금리가 최대 0.9%p 낮아질 수 있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08%p 인하하고, 농업인과 청년을 상대로 제공하는 대출은 각각 0.5%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3.89~4.27%다. 지난해 11월 5%를 넘었으나, 2개월만에 1%p 하락했다.

반면 5대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93~8.11%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상단이 8%가 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국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8곳이 예대율로 거둬드린 수익은 53조322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부터 “금리상승기은행이 시장금리수준과 차주신용도 등에 비취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기존대출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를 대비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은행은 대출 실행후 3년이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0.5

~1.4%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금 1억을 남겨두고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소 5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신용등급 5구간(KCB 698~767점) 이하 저신용 차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신한금융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 중 신용등급 7구간(KCB 530~629점)이하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 상환 시 자동으로 수수료가 면제된다.

KB국민은행도 내달 10일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용등급 5구간(KCB 698~767점)이하 차주는 대출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상환시 자동으로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사모 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발행규모 늘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부당이익 획득, 불공정거래 지속발생

금감원 ‘사모 CB 합동대응반’ 운영
중대사건 위주로 특성에 맞춰 조사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CB는 2020~2022년 3년 간 1384건, 총 23조 2000억원어치 발행됐다. 앞서 2013~2015년(4조6000억원·481건)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년 10조8000억원어치(598건)가 발행되며 전년(7조2000억원) 대비 50%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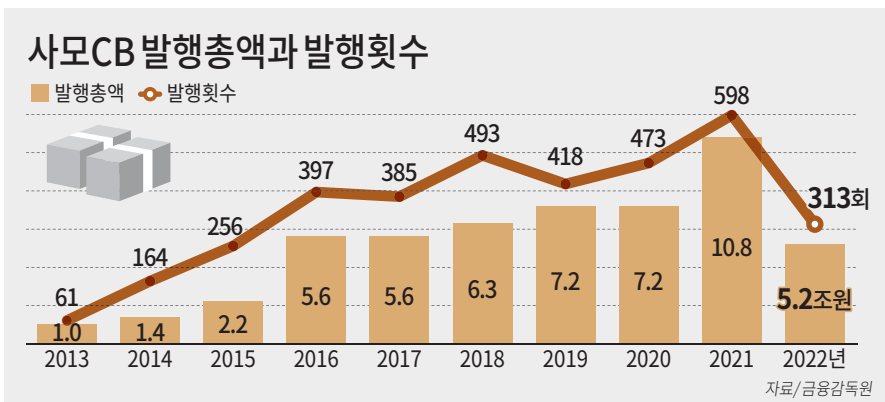
문제는 사모CB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CB 인수후 시세조종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익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상장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으며,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악용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모 CB 합동대응반’ 운영…집중 모니터링

이에 금감원은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사모 CB 합동대응반은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총출동한다.



우선 조사국은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부당이익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혐의자 연계 사건에 대해 조사 3개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별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공시국과 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와 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집중 심사를 진행,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안사안 등을 조사국과 적극 공유한다.

회계감리1·2국은 사모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할 계획이다.

CB 발행 금액·횟수 과다, 조달금액의 용처 불분명 등으로 분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회계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검사 시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사모CB 활용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불법행위 은폐·조력 혐의 등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

기로 했다.

◆ 사모CB ‘대용납입’ 심사 강화

특히 사모CB 대용납입(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권대금 납입하는 것)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심사 강화도 진행된다.

최근엔 대용납입을 통한 주주가치 훼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장사가 사채발행 대상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양수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때 채권 납입금과 자산 양수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용납입한 자산이 부실화하면서 평가손실로 발생하고, 이 여파로 감사의견 거절까지 나오면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9년 3584억원이었던 대용납입CB 발행금액은 지난해 1조1352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B발행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를 개정한다. 이와 별개로 발행된 사모CB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할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 만들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도 폐지 30년 관행 폐지수준으로 개편”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STO는 통상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해본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분산원장기술로 STO투자자들의 재산권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식별기호(LEI) 등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테크스포스(TF)를 구성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옴니버스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이미 거래소 계좌가 개설된 글로벌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주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 개정과정에서 다시 한번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해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불명확한 기준에 잇단 소송… “처벌보다 예방 인센티브”

두성산업, 위험법률심판 제정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경영계 “경영주 처벌 수단 전락”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들은 위험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장 내 논란을 줄이려면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이란 법적 용어를 ‘예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사례가 된 두성산업은 해당 법의 위험요소를 들어 재판부에 위험법률심판을 제정한 상태다.

에어컨 제조업체 두성산업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사업장에서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돼 직업성 질병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후 두성산업은 국내에서 처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화우 측은 “해당 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돼 있어 경영책임자 등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곧바로 중벌주의로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고, 해당 법이 명확성,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험법률심판을 제청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1호’인 삼표산업은 올해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5개월간 사고 조사 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삼표산업의 경영주도 소환 조사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뒤이어 기소된 기업들도 줄지어 위험소송을 준비 중이다. 모두 해당 법의 명확성, 과잉금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위험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현행 중대재해법에 근거해 수사한 뒤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수사와 재판은 길어지면서 현행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중대재해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사례 한 건 없는 유명무실한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영세사업장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동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문화’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기소된 기업들의 위험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기소된 모든 사건의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해 있어도 없는 법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꾸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던 포스코건설의 경우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로 200만원씩 지급했다. 고용부는 주요 건설업체 대상으로 중대재해가 없을 시 안전 감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를 살리고, 노사가 자율 예방체계를 갖추려면 법명부터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에서 논란이 큰 만큼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보다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다보스 13년 개근’ 김동관 한화 부회장

그린 에너지 허브 구축 앞장

태양광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에너지 인프라 기술, 글로벌 협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해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량과 새롭게 확보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술, 글로벌 협력을 통해 ‘그린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16~20일(현지 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및 태양광·풍력, 수소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잇달아 만났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18일 미국 합작회사 설립 등 한화와 태양광 분야에서 협력 중인 토탈에너지의 빠뜨릭 뿌요네 CEO를 만나 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이어 글로벌 풍력터빈 시장점유율 1위 덴마크 베스타스의 최고경영진을 만났다.

앞서 17일에는 미국 최대 재생 에너지

개발 기업인 AES의 안드레스 글루스키 CEO를 만나 탈탄소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AES는 최근 텍사스에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LNG운반선 등 선박 700척을 운영하는 일본 MOL의 CEO 다케시 하시모토와도 만났다. 또 이탈리아 최대 전력회사 에넬의 프란체스코 스타라체 CEO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협력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2010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2013년에는 한화큐셀이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 태양광 모듈을 기부했고, 2018년에는 한화가 후원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기념품을 증정하고, 더 플라자호텔 셰프들이 만든 한식을 글로벌 인사들에게 제공해 민간 홍보사절단 역할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김 부회장이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파견한 ‘다보스 특사단’에 참여했다.

/양성운 기자 ysw@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Electrification of Everything[모든 사물의 전기화]의 시대,
LS는 새로운 비전 2030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인 전기로
빛 제로 시대를 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경제 선순환 도모해야”

민주당, 연금개혁 토론회

연금 예비 수급자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하자는 주장과, 보장성을 강화해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로 은퇴 이후 ‘적정한 삶’은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발제강연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해 “노동세대의 자신이 생산한 GDP (국내총생산)의 일부를 퇴직세대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연금”이라며 “연금 기금 적립 여부나 기금의 규모보다 노동세대와 퇴직세대의 상대적 규모 및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엔 노인 인구가 적었던 반면, 생산가능 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직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재정안정론에 기반해 연금 민영화한 남미 국가들의 예를 들었다. 이들 국가들은 연금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노후 빈곤 예방 실패, 가입률 감소, 비효율적 관리 등을 초래해 연금의 재공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지난 2019년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다수안 합의의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다수안은 연금 급여와 보험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를 현 9%에서 12%로 단계적



민주연구원이 지난 18일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왼쪽부터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측 간사, 정세은 충남대 교수, 남찬섭 동아대 교수,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최현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후준비 정도와 노후준비수단으로서의 국민연금 의존도〉

/ 김성주 의원실

구분	노후준비 하고 있다(%)		주된 노후준비수단이 국민연금(%)	
	2005년	2021년	2005년	2021년
전체	52.3%	67.4%	33.9%	59.1%
20대	36.0%	40.9%	33.9%	61.2%
30대	66.5%	74.1%	30.0%	60.1%

현재, 연금 도입된 1988년도보다 상대적으로 퇴직인구 비중 커져

연금급여·보험료율 동시에 인상 경사노위 ‘다수안 합의’ 주목해야

5년마다 연금재정 추계 계산되면 ‘재정안정론 우선’ 분위기 형성

으로 인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남 교수는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소득 비례연금 강화로 저소득 노인 발생 자체를 감소시킨 캐나다의 예를 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제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추계의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계산되면, 재정안정론이 우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미래 70년 동안의 경제를 전망하고 그 아래서 보험료 지급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초저출산율, 은퇴 연

령, 생산인구 부족, 생산성 등 확정적인 미래 전망이 아닌 핵심 변수의 비관적인 미래 가정에 기초한 추산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경제 불안정과 소비 부진을 초래한다는 것도 반박했다. 오히려 공적연금에 대규모 기금을 쌓은 것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기자는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 충분성이 공적연금의 신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30세대가 90%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래 지속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을 한 일본도 단계적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비세로 재원을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지난 18일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일부 확보하는 등 국민적 저항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연금개혁 당시 보험료율 4.5%포인트(p)를 1년에 0.354%포인트씩 서서히 올려 저항을 낮췄다. 또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해 인상분의 일부를 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작동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작업도 이번 개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광범위한 사각지대, 가입기간 부족 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다”며 “소득 발생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질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하면서 실시간 소득과파이가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1면 ‘처벌 없는 중대재해법’서 계속

현행 중대재해법에 경영계 “불안” 호소 노동자 “있으나 마나”

징역형에 벌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은데 정작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처벌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영계는 불명확한 법 때문에 경영이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노동자들은 수사나 재판만 길어지고 처벌 사례는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어 ‘중대 예방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온 거 같다”며 “빨리 기소되고 판결 사례가 나오면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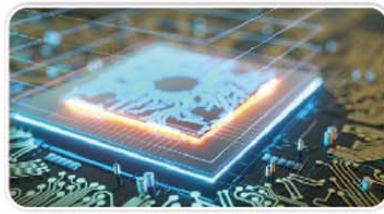
/ 세종=원승일 기자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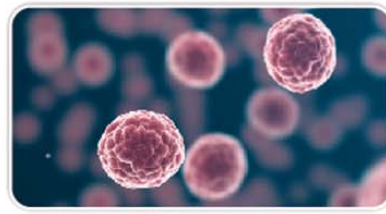
전남의 새로운 미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대한민국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레이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꿉니다



반도체
· EUV광원, 미세가공



의료, 생명공학
· 소형 암 치료기



우주항공, 국방
· 특수 소재, 우주광통신



에너지
· 핵융합, 무선 전력 전송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은?

초고출력과 고에너지에 기반한 레이저를 활용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적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복합연구시설

전라남도
Jeollanamdo

증시·코인 등 줄줄이 오르지만 전문가들 “기대감 과해” 우려 의심 많은 개미는 ‘하락 베팅’

/유투이미지

연초 코스피 반등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 대부분이 연 초 대비 가격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2만 달러선을 회복하는 등 반등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글로벌 긴축 기조 속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급락했던 위험자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난 반등세가 상승장으로의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증시 전문가들 “단기적으로 기대감 과해”

지난해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국내 증시 패턴을 대부분 ‘상저하고(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아짐)’로 예상했다. 본지 2일자 보도에서도 주요 증권사 11곳 리서치센터장의 올해 증시 전망에서 11곳 중 10곳이 ‘상저하고’를 예측한 바 있다. 다수가 상반기 부진-하반기 반등 패턴을 예상한 상황이다.

주요 증권사 ‘상저하고’ 전망에도 코스피 상승에 투자자 혼란 가중 “약세장 마지막 국면 해석 지나쳐”

그러나 이같은 전망에도 최근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돌파하면서 향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섞이면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세장에서도 소폭 반등하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상승장으로의 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선부르다는 평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초 대비 증시 지수가 오른 것은 맞지만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닌 등락이 이어지는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상적으로 증시가 경기 흐름의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 하반기 글로벌 경제상황이 침체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오랜 하락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기대감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증시 부진의 대표적인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02포인트(0.51%) 상승해 2380.34로 장을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원인으로 꼽힌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국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밀돌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까지도 국채 3년물 금리는 연 3.390%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최근의 오름세는 실적이 뒷받침된 상승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증시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밸리로 인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11.74배로 올라 2021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200~3300대와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에 도달한 것”이라며 “경기, 실적보다는 금리인하 등 기대감에 근거한 반등이라는 의미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금리인하 기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본격적인 지난해 4분기 실적시즌이 전개된다면 추가적인 이익전망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라며 “최근 시장의 기대감은 전형적인 약세장 마지막 국면의 패턴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과하다”고 분석했다.

◆개인들은 ‘곰버스’ 줍줍…하락 전망 우세

여전히 증시 전망이 혼란스러운 만큼 투자에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점쳤음에도,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와 정반대인 ‘상고하저’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로서는 추후에 공개되는

각종 경기 지표 결과에 따라 예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증시 상승세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단기적인 하락에 베팅하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만 총 3억46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가 3조4692억원을 순매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인들은 주식 매도에 그치지 않고 증시가 하락할 경우 수익을 얻는 ‘곰버스’까지 대량으로 사모으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KODEX 200선물인버스 2X’로, 해당 기간 동안 총 4378억원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2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1160억원)보다도 4배 가까운 수치다.

개미, 주가 상승 의구심 여전 올 들어서만 3억 넘게 순매도 ‘하락베팅’ 곰버스 대량 사들여

그러나 곰버스와 같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변동성 장세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레버리지 ETF는 단기간에 두 배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추종 지수의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증시는 반등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양방향으로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위험성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상위〉 단위:백만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금액
1	KODEX 200 선물인버스 2X	437,842
2	삼성바이오로직스	115,977
3	한국항공우주	90,969
4	CJ제일제당	86,127
5	LIG넥스원	78,758
6	SK텔레콤	78,673
7	포스코케미칼	72,882
8	한국전력	69,717
9	KODEX 인버스	59,419
10	삼성SDI	56,141

기간: 1월2일~18일

/한국거래소

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가 상승에 의구심을 가진 개인들이 늘면서 대기자금마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 50조 834억원에 달했던 투자자 예약금은 지난 17일 9.6% 감소한 45조 2456억원으로 줄었다. 더불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용자 잔고 역시 같은 기간 16조 5311억원에서 3.28% 줄어들면서 15조 989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1면 ‘외국인 매수’서 계속

외인, 삼성전자 등 반도체 끌어담아

외국인들은 최근 국내 증시 종목 중 시총 상위 종목인 반도체와 은행 관련 종목을 끌어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인 18일까지 삼성전자를 1조 549억원 사모으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순매수세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을 각각 3919억원, 1722억원, 1654억원 가량 사모았다.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같은 악재 해소, 중국의 경제 회복 등 지난해 증시를 짓누르던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증시 반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현상을 지난해부터 이어진 약세장의 ‘마지막 단계’로 해석하기에는 추가적인 경제지표 확인 과정이 더해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주가가 크게 떨어진 점과 함께 최근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 명확한 판단이 안가는 상황으로 추세전환했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발표될 경제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 尹 “제 집무실 항상 열려있다”

국내외기업 CEO들과 오찬간담회

韓 기업 대표에 이재용 등 6명 참여
해외선 IBM·JP모건 회장 등 참석

尹 “다양한 경험·지혜 위기에 도움
안목있는 통찰·조언들도 큰 성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경제외교 행보에 적극 나섰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외곽의 한 호텔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기업 대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

글로벌기업에서는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몬 쉘렉스 대표, 토시아키 히가시하라 히타치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투자사 대표, 스테판 슈왈츠만 블랙스톤 회장, 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 회장,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CEO와의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패트릭 겔싱어 인텔 회장, 버나드 멘사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 와엘 사완 헬 대표, 베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회장, 마크 슈나이더 네슬레 대표, 제임스 쿨터 TPG 공동 대표, 존 리아디 리포 카라와찌 대표, 빠뜨리 뿌요네 토탈 에너지 대표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찬에 앞서 자유롭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에게 “이렇게 뵈어서 반갑습니다”라며 패트릭 겔싱어 인텔 CEO에게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인텔에서 일한 사람 많지 않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투자사 CEO와 함께 와 “여기 아는 얼굴 한 분 있습니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크게 웃으면서 칼둔 CEO와 포옹을 했다.

칼둔 CEO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민 방문 때 편히 계셨느냐”고 윤 대통령에게 전했고, 윤 대통령은 웃으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두바이 미래박물관에 대해 “UAE가 추구하는 특유의 투명성과 보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에 많은 관심을 보인 제임스

쿨터 TPG 공동대표에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정책으로 산업화해서 풀어가려 한다. 규제보다는 탄소중립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임스 쿨터 TPG 공동대표가 “지금 이 적기”라고 화답하자,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전체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호

응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제가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글로벌 위기들을 직접 경험하고, 극복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만큼은 제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사드리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라고 얼굴도 알려드려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 사무실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들로부터 안목 있는 통찰과 조언을 듣게 돼, 그게 두 번째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자주 뵙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세 번째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부산서 인류 공동위기 해결책 함께 모색”

尹대통령·김 여사 ‘한국의 밤’ 참석
“경제·산업·문화 강국, 경험 나누길”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8일(현지시간)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밤’은 다보스포럼 기간 중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2010년)·박근혜(2014년)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양극화 등 한 나라의 노력만

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류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전략 역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0여 년 전 우리는 전쟁과 분단,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다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런 우리의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

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은 역동성과 개방성으로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열린 경제 강국, 반도체·배터리·미래차·청정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 강국, K-팝·영화·드라마·웹툰 등으로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는 창의적 문화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부산은 세계 2위의 허브 항만이 있고, 매년 아시아 최대의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는 국제적인 산업·문화 융합 도시”라며 “우리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대한상의, ‘한국의 밤’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 표명

최태원 회장 등 정·재계 리더 자리
韓 문화 알리고 네트워크 활성화

대한상공회의소는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를 통해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모인 글로벌 정·재계 리더들에게 한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아메론 호텔에서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Korea Night)’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개최후보지인 부산을 홍보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자 대한상의와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위원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것이다.

코리아 나이트는 글로벌 정·재계 리

더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 기간에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기업인과 네트워크를 가지는 자리이다. 2018년 외교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개최한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열리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손경식 CJ 회장, 김영훈 대성 회장 등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이 함께

자리했다. 정부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은 특별참석자로 초청됐다.

올해 코리아 나이트에 다채로운 공연으로 볼거리가 풍성했다. 프랑스 문화 예술공로훈장인 오페시에상을 수상한 재즈보컬리스트 ‘나운선’ 씨와 방송 복면가왕에서 우승을 다수 차지하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유명한 가수 ‘소향’ 씨가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해 참석자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올해 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리아 나이트가 한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가 전세계로 전달되고 한국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상의는 한국 기업과 함께 엑스포 유치 활동

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유치 과정에서 발굴된 세계 각국의 니즈가 한국 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Shinhan

모두가 꿈꾸는 내일의 금융 세상, AI로 그려보았습니다

AI 입력 키워드:

모두의 잠재력이 기회와 만나고
작은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되는 세상
어르신들도 디지털 금융을 손쉽게 쓰고
지구의 공기까지 100년 전처럼 맑아진 세상 ...

*광고에 쓰인 이미지는 AI 아트 생성 프로그램 Midjourney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조직 안정’ 최우선 과제… 지역상생·미래 新사업 발굴 관건

BNK금융 차기 회장에 반대인

6년 만에 내부출신 회장 내정
조직 이해도·관리 역량 탁월
내부조직 안정화 적임자 평가
디지털중심 변화 주도 기대감

반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차기 BNK 금융그룹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돼 화려한 복귀에 성공했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면 6년 만에 다시 내부출신 회장이 BNK를 이끌게 된다.

1960년생인 반대인 전 은행장은 32년간 함께한 ‘BNK 혈통’ 인사로 꼽힌다. 최근 어수선했던 BNK금융 내부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다.

◆ 탁월한 리더십 ‘안정’ 기대

빈 차기 회장의 첫 과제는 조직 안정이다. 김지완 전 회장이 임기를 앞두고 용퇴하면서 BNK금융의 조직 분위기는 흐트러진 상황이다. 빈 차기 회장은 그룹이 불안정한 시기에 행장을 역임한 만큼 조직 안정에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의 장점은 ▲지역과 조직에 대한



BNK부산은행 본점

높은 이해도 ▲탁월한 조직 관리 역량이다. 1988년 부산은행 입행으로 그룹에 합류한 그는 영업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 신금융사업본부장, 미래채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17년 4월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이 구속되자 행장 직무대행에 발탁됐고 같은 해 9월 행장으로 정식 취임해 3년간 경영을 책임지다가 2021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바 있다.

당시 빈 전 행장은 임직원에게 수차례 ‘CEO편지’를 보내며 주가조작 논란 등으로 어수선했던 내부 분위기를 안정

시켰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9일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룹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 “지역균형 발전 부흥”

BNK금융지주는 자산 규모 130조 원, 8000명에 이르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동남권 최대 금융그룹이다. 수익 대부분은 지역 기업과 시민으로부터 창출되는 구조다. 동남권 경제의 자금줄 역

할을 하면서 지역 발전과 상생하는 것도 경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지주회장 자격 요건에 대해 ‘지역은행으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임추위와 후보자는 BNK금융지주가 지방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한 뒤 BNK금융그룹 수장의 자격요건으로 “지역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와 경남, 울산, 부산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후보”를 제안했다.

금융노조는 “BNK금융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인재 채용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철저히 경영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BNK금융그룹 수익 대부분은 지역 기업·시민에서 나오고, 경남·울산의 긴 경제적 암흑기를 함께 극복하는 순간 그룹 미래가 열린다는 논리다.

◆ “디지털 금융 확대…미래사업 발굴”

최근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이다.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

진이 금융사도 IT와 융합된 신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빈 전 행장은 부산은행 재직 당시 디지털 및 신사업 책임자였던 만큼 향후 지주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빈 전 행장은 2013년 지역본부장을 거쳐 경남영업본부장(부행장보)으로 선임됐다. 2015년부터는 부산은행의 핵심 사업인 디지털 및 핀테크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채널본부 부행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임추위 위원들은 반대인 후보자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금융분야 전문성 ▲지역은행 최초의 모바일뱅크 출시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옴니채널 구축 ▲창구업무 페이퍼리스 추진 등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온 경력을 높게 평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김감원, 금융권과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함께 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김감원 외에도 KB국민은행·미래에셋증권·신한라이프·우리카드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4500만원의 후원금을 공동 마련해 서울 영등포구 관내 사회복지단체 4곳에 전달했다. 이북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할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카뱅 “우편함 대신 앱으로 확인하세요”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내 문서함’ 서비스를 출시했다.

‘내 문서함’ 서비스는 예금잔액조회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문서 등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문서를 전자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서 도착 알림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격으로, 공인된 인증 자격을 갖춘 기관만

확보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 문서함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본인 확인기관’, 올해 1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까지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문서 열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9일 “다양한 인증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새 환경 선제대응 위해 낡은관행 손질”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신년간담회 화상통화 등 활용 가입 간소화

손해보험협회가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낡은 관행을 손질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사회 신(新)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산업 내 실화를 통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위험보장이란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우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재정



2023년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왼쪽 첫번째)이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비한다. 사회재난 보장특약을 신설하고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을 강화해 건강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맞춤형 펫보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보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 또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독사 관련 보장 담보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낡은 금융규제와 업무방식도 바뀌나

간다. 화상통화, 플랫폼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 서비스를 간소화 한다. 아울러 소비자 맞춤형 민원 해결 방법을 구축해 보험민원 처리에도 편의성을 더할 전망이다.

차사고 과실분쟁 해소 속도도 빨라진다. 보험금 지급 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금리인상에 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작년 11월말 연체율 0.27%

전월보다 0.02%p 올라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최근 조금씩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7%로 10월 말 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0.36%를 기록한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

속되면서 2021년 말 0.21%까지 하락했다.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0.27%까지 다시 상승했다.

11월 한 달 동안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올랐다. 특히 고금리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말(0.22%) 대비 0.02%p 상승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4%로 전월 말(0.13%) 대비 0.01%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0.43%) 대비 0.06%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0.26%) 대비 0.03%p 올라갔다.

대기업만 전월과 동일한 0.07%의 연체율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은 0.30%에서 0.34%, 중소기업은 0.37%에서 0.40%, 개인사업자는 0.22%에서 0.26%로 연체율이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연포탕’ 앞세워 외연 확장나선 김기현 “네거티브 안할 것”

〈연대·포용·탕평〉

불협화음 높아 국민 우려 목소리
당내분열 획책 정당화 할수 없어
연포탕 정치로 통합 만들어 낼 것
미래 위해 건설적 논의·토론 집중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기현 의원이 최근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장연대(김기현, 장제원)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잡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 김 의원이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전략으로 외연 확장도 노린 모습이다.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없는 과반 득표’로 당선을 노리는 전략인 셈이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즘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보다는 싸우는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 대표 후보로서의 책무”라며 “연대와 포용, 탕평(연포탕)의 정치로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 통합의 가치’를 올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과 통합 메시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연포탕’ 정치를 통해 국민의힘이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연대·포용·탕평, ‘연포탕 정치’를 통해 당의 화학적 통합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거센 비판과 당권 주자 간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되, 뜻과 방향을 같이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당권 주자 간 과열 경쟁 때문에 전당대회가 내홍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 오직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이야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원은 “통합을 위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방이 있기에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당 소속뿐 아니라 우리 당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통합의 길을 걷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때 특정 계파 인사들에 대한 배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파를 앞세우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당 운영과 공천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

속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과 관련 ▲부정부패 비리 카르텔 혁파 ▲사법시험 제도 부활 ▲각종 채용 특혜제도 대대적 정비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일부 강성 귀족 노조 등 기득권 세력 혁파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꺼져버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되살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역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 별개로 친윤(親尹석열) 중심으로 나 전 의원 비판을 이어가면서, 외연 확장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이 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며 이른바 수도권 연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도 김 의원 외연 확장 전략에 걸림돌로 꼽힌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5·18정신은 화해·통합… 진정한 국민통합 이룰 것”

與 비대위, 설 앞두고 호남행
첫 일정 5·18 민주묘지 참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호남을 찾았다. 당 지도부가 호남에 방문한 것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광주 시청에서 가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6개월 만이다.

정진석 비대위는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5·18 민주묘지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기둥에 가치를 담았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어 “5·18정신은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며칠 전 5·18(단체) 핵심 회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5·18 당시 광주에서 순직한 군경 모역을 참배했고, (이는) 43년의 비극을 끌어내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여당이었던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

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 주요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진정한 국민 통합은 먼저 5·18 민주영령이 일고구자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광주·전남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한 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첨단산업 창업도시 광주,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 관광도시 전남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던 평화와 활력있는 광주·전남을 만들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UAE 적’ 尹 발언 논란 “한-이란 관계 악영향 우려”

국회 한국·이란 의원친선협회가 19일 미국 대(對)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로 어려운 한-이란 관계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란 발언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면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수교 61주년을 맞는 한국과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이 이란에 줘야 할 석유 수출 대금 70억달러가 동결된 상태다.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간 평화로운 관계가 무르익어가는 마당에, 제3국의 대통령이 불쑥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아랍에미리트 주둔 한국군 장병들이 오해받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이기와 같다면, 정부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이란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내 동결 이란자금 문제의 해결, 국제 제재와 무관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한-이란 관계의 회복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의원 간 교류 확대 및 정책 지원 등 적극적인 의원 외교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이태원 상권 초토화…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민주 “尹정부 소극적 태도” 지적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상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 소속인 남인순·박주민·이동주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이태원참사사고수습단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세 달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상권은 초토화됐다.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 참사 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하신 분들”이라며 “국민 모두가 이 참화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이 코

로나19에 이어 10·29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면서 “코로나 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을 보강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먼저 대출해주면 임대료의 반값을 상환면제하는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실적 우려 기우였나… 지난해 완성차업계, 판매·매출 ‘쌍싱’

현대차·기아, 매출·영업익 ‘신장’
고부가 제품 판매로 실적방어 성공
쌍용차·르노·한국지엠도 실적개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해 판매와 매출 모두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기아와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등으로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공장은 부품 수급 추질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부가 제품 위주의 판매와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각각 20.83%, 41.02% 늘어난 142조 1088억원, 9조 4185억원을 기록할 전



망이다. 기아는 24.5% 증가한 86조 9744억원의 매출과 36.0% 증가한 6조 888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현대차·기아 실적 전망치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 등 외부 악재로 전체 판매량이 주춤한 상황에서 기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 현대차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394만4579대, 기아는 4.6% 증가한 290만3619대를 판

매했다. 지난해 판매목표인 현대차 401만대, 기아 315만대 달성도 실패했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부가 제품 판매 비중 확대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부족으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동현 현대차그룹 경제산업연구센터 자동차산업연구실장(상무)은 “코로나19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에 따르면 대규모 생산 차질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다”며 “올해부터는 물량 공급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와 르노코리아도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는 중형 SUV 토레스의 흥행으로 6년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했으며 르노코리아는 소형 SUV XM3의 글로벌 판매 상승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다.

쌍용차는 지난 18일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339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건 2016년 4분기(101억원) 이후 6년(24분기) 만이다.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도 2018년 4분기(1조574억원) 이후 처음이다.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은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토레스였다. 쌍용차는 티볼리와 렉스턴 스포츠 이후 월 4000대 가량 판매되는 차량이 없었지만, 토레스는 4분기 1만1909대가 판

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쌍용차 전체로도 이 기간 동안 3만3502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50% 판매가 증가했다.

르노코리아차는 지난해 유럽 지역에 9만8861대를 수출하며 실적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유럽 수출을 견인한 건 2021년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소형 SUV XM3(수출명 아르카나)다. XM3는 용인에 위치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국내 연구진들이 연구·개발을 주도한 차량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목표보다 앞선 실적은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전년비 11.7% 증가한 연간 총 26만4875대를 판매했다. 또 한국지엠이 오랜기간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진행하며 준비했다는 점에서 올해 흑자전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은 올해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글로벌 수출 시장을 책임질 차세대 CUV 모델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온, 美 업체와 배터리 음극재 개발나서

우르빅스와 흑연 기반 공동개발 협약
개발 성공시 자사 배터리공장에 투입
美 IRA 발표 앞두고 현지공급망 강화

SK온이 미국 소재 업체와 손잡고 배터리 음극재 개발에 나선다. 올해 3월쯤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표를 앞두고 북미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SK온은 우르빅스와 배터리 음극재 공동개발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SK온 배터리에 특화된 친환경 고성능 음극재를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우르빅스가 정제한 흑연을 바탕으로 한 음극재를 SK온이 개발중인 배터리에 적용한 뒤 그 성능을 함께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업 기간은 2년으로 양사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SK온은 우르빅스로부터 음극재를 공급받아 미국 내 SK온 배터리 공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4년에 설립된 우르빅스는 배터리 용 친환경 천연흑연 가공 기술을 보유한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우르빅스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흑연 정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 기업이다. 애리조나주에 연산 약 1000톤 규모의 음극재 생산라인을 현재 구축 중이며 생산규모를 2025년까지 연산 2만 8500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 중 하나다. 배터리의 수명,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등을 좌우한다. 현재 원소재로는 주로 흑연이 쓰이고 있다.

음극재는 특히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재로 꼽혀 배터리 업체 상당수가 공급망 다각화에 힘을 쓰고 있다. 국

제에너지기구(IEA)가 작년 하반기에 발간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음극재 생산의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SK온은 글로벌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원소재 수급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SK온은 지난해 칠레 SQM, 호주 업체들인 레이크 리소스, 글로벌 리튬과 계약을 잇따라 맺었다. 음극재의 경우 지난 7월 호주 시라와 천연 흑연 수급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생활가전 AI 신뢰성 인증 획득

투명성·안전성 등 요건 충족

삼성전자 생활가전이 인공지능(AI)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신뢰성 인증은 AI 기술 신뢰성과 윤리성을 검증해 수여한다. 투명성·안전성·책임성·다양성 준종의 4가지 요건을 검증한다. 한국표준협회가 지난해 5월부터 ‘민간 인공지능 신뢰성 시범 인증’ 사업 결과로 신선했다.

삼성전자는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와 ‘스마트싱스 홈케어’로 인증을 받았다.

비스포크 제트 봇 AI는 사물 인식·분류 기술에 대해 신뢰성을 인정 받았다.

라이다(LiDAR) 센서와 3D 센서를 적용하고, 100만개의 이미지를 학습한 이 제품은 집 구조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가구, 가전, 컵, 강아지 등 20종의 사물을 인식한다. 특히, 인식한 사물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장애물별 다른 회피 패턴으로 움직여 안전한 청소가 가능하다.

스마트싱스 홈케어는 세탁기의 ‘결빙 방지 모드’에 적용된 AI 기술력으로 신뢰성을 인증 받았다. 비스포크 그랑데 AI세탁기의 결빙 방지 모드를 설정하면, ‘HRM(Home appliance Remote Management)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종합해 세탁기의 결빙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자에게 미리 알림과 대처 가이드를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美 설계승인 취득

세계 최초 금속 저장용기 개발 성공
안전성 높고 공간 차지도 적어 ‘강점’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 참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 NAC(Nuclear Assurance Corporation)와 공동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금속 저장 용기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계승인을 받은 ‘MSO’(Metal Storage

Overpack) 모델은 금속 저장 용기로, 사용후핵연료 37다발을 저장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를 금속으로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다. 금속 저장용기는 기존 콘크리트 저장용기 대비 안전성이 강화되고, 차지하는 공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초기 5년간 물로 채워진 수조에서 습식저장 방식으로 냉각한 후 외부의 용기 혹은 구축물로 옮겨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건식저장방식으로 보관된다.

MSO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이러한 용기는 방사선과 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특수 설계와 고도의 제작기술을 필요로 한다.

김종두두산에너지빌리티원자력BG장은 “이번 금속 저장용기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으로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연구처분용기 개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환경·경제 효율성 극대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과 경제 효율성 극대화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한국원자력연구원, 3D 프린팅 스타트업 HM3DP와 연구 협업을 통해 손상부품 적층 복원용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기존 원자력용 소재 부품 제조 목적으로 개발되던 3D 프린팅을 비원자력 산업용 특수 금속 부품 복원에 적용한 스핀오프 기술(Spin-off, 특정 분야의 기술이 다른 분야의 개발로 이어지는 기술)이다.

한국테크노돔(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연구진들은 한국타이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Ti 합금 블레이드(타이어 소재 커팅용 부품, 이하 블레이드)의 손상부를 DED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금속 3D 프린터로 Ti 합금 블레이드의 손상부를 복원하고 있다.

(Directed Energy Deposition, 고에너지 적층) 방식으로 적층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블레이드는 경화 소재가 첨가된 타이어 수지를 반복적으로 절단하는 부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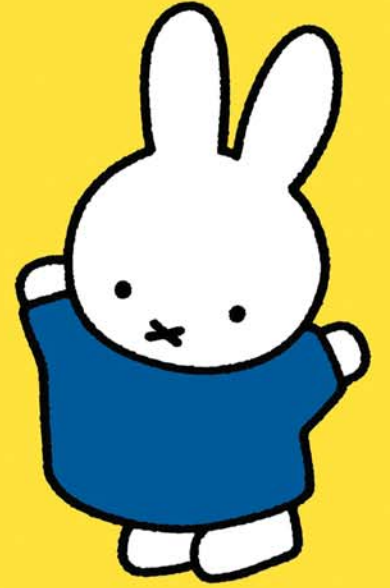
이전에는 완제품을 공급받아 마모 및 손상 발생 시 불가피하게 폐기되었지만 이번 블레이드 손상 복원 기술로 수리가 가능해지면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양성운 기자

Krispy Kreme DOUGHNUTS × miffy



HAPPY NEW YEAR with MIFFY

KRISPY
KREME



RICE
FLAVOR

HAPPY MIFFY



CHOCO

LUCKY MELANIE



Illustrations Dick Bruna © copyright Mercis bv, 1953-2022

LOVELY RABBIT FOOT

MELON



CARROT

CARROT GARDEN

Krispy Kreme DOUGHNU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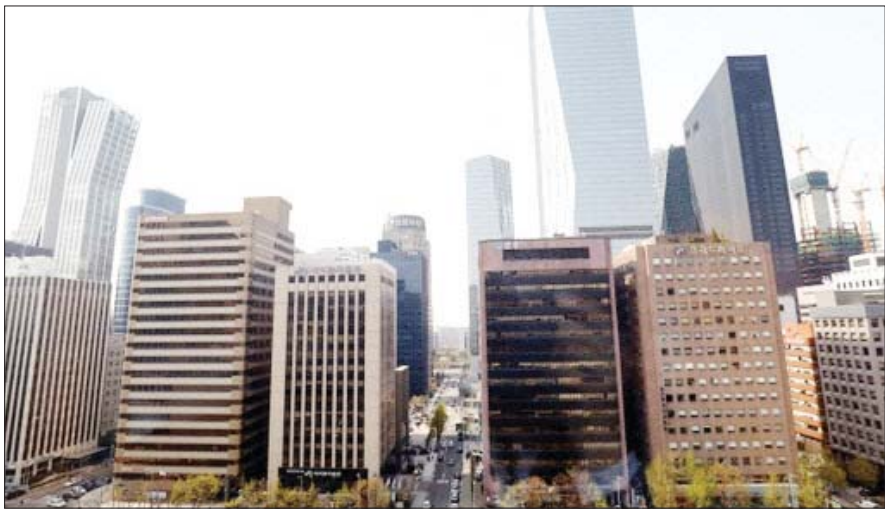
업황 악화에도 반등했던 증권주… “추세적 상승 힘들 것”

〈전문가들〉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심리 회복
부동산 PF 부실 등 우려 ‘여전’
증권사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증권주가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업황 악화로 증권사들의 실적 또한 부진할 전망이어서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14개의 증권주가 포함돼 있는 KRX증권 지수는 이달 들어 13% 가량 상승했다. 개별종목별로도 크게 올랐다.



여의도 전경.

/뉴시스

한화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22.98%, 18.69% 상승했다. 그다음으로는 한국금융지주와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15.76%, 14.10% 올랐으며, 미래에셋증권 또한 13.65% 뛰며 강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급감했고, 이에 더해 부동산 PF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증권주는 큰 부침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KRX증권 지수는

28.48%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전망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증권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이같은 상승 흐름 속에서도 증권주 투자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 데다가 향후 실적 전망 또한 어두워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증권사들(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순이익을 전년 대비 41.9% 하락한 4381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남아있는 매크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증권업종 펀더멘털의 빠른 회복 가

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당분간 핵심 영업지표들의 바닥 다지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심리 개선에도 거래대금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투자은행(IB) 자문 수수료 또한 상장 예정 기업들의 연기 및 철회가 이어지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정민기 연구원은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는 유동성 리스크보다는 신용 리스크에 집중될 전망”이라며 “유동성 리스크의 경우 연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신용리스크는 완화의 전제 조건이 기초자산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내달 MSCI 편입 종목 관심…

카카오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상 FCP, KT&G 주주총회 안건 공식 접수

내달 10일 MSCI 지수 정기변경 발표
신규 편입시 패시브펀드 자금 유입

오는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종목 정기 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 종목으로 편입될 경우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의 2월 분기 리뷰에 따른 종목 정기 변경 결과가 오는 2월 10일 발표된다. 리밸런싱은 2월 28일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포괄적 분기 리뷰 방식이 도입된다. 그동안 2, 8월에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분기 리뷰를 진행했고, 5, 11월에 종합적인 분기 리뷰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2, 5, 8, 11월 모두 동일한 규칙에 따라 분기별 종합 지수 리뷰를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페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편입을 예상했다. 단, 카카오페이의 편입 확률은 높음(High),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립(Mid)이

〈MSCI 2월 리뷰 예상 편입종목〉

(십억원, %, 일)

코드	이름	섹터	확률	시가총액	예상 비중	예상자금 유입액	수급강도 (DtC)
A377300	카카오페이	정보기술	High	9,390	0.19%	91	1.01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재	Mid	4,061	0.28%	135	2.016

/다올투자증권

라고 밝혔다.

하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 편입 시 예상 유입자금 규모는 825억원으로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 1.3 배로 상당히 편입 당일 인덱스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로서는 상향 편입 가능성이 낮지만 편입된다고 가정할 시 예상되는 유입자금 규모는 336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MSCI 정기변경에 따른 인덱스 효과에 주목하라고 밝혔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MSCI 정기 변경에 대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고, 수급도 선반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최근 패시브자금의 흐름(flow)을 보면

신흥국 선호도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신흥국 주요 패시브 자금 유입액과 설정좌수가 1월 들어 크게 급증했다”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같은 편입 예상 종목이지만, 서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카카오페이는 직전 리뷰 때 유동시가총액 파이널 요건에서 탈락했지만, 시가총액이 컷오프 이상인 심사 대상 종목이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톱갭 구성 종목이지만 스톱갭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컷오프 이상인 심사 대상 종목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DL이앤씨·카본코, 베트남서 탄소광물 사업 추진

베트남 국영 기업과 협력 약속

DL이앤씨와 카본코가 베트남에서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DL이앤씨와 카본코는 하노이광업지질대학교,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 강원대학교와 ‘탄소광물 사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과 상업화 협업’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의 기술 이전부터 현지 사업화를 목표로 발전소 및 광산을 보유한 베트남 국영 기업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영호 카본코 사업수행실 부장(왼쪽부터)과 김동현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 실장, 최성웅 강원대학교 부총장, 탕 하이 쩌(Thanh Hai Tran) 하노이광업지질대학교 총장, 안지환 탄소광물화 플래그십사업단 단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L이앤씨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족한 탄소자원과 범부처 프로젝트다.

탄소광물화 기술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나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

온 폐콘크리트 등을 포함한 탄소와 반응시킨 뒤 저장 및 활용하는 기술이다.

DL이앤씨와 카본코는 이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골재와 건축자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탄소저감은 물론 원가절감도 실현 가능하다.

/김대환 기자

차석용·황우진 사외이사 추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lashlight Capital Partners·FCP)가 오는 3월 열리는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이사과 황우진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어 인사공사 분리상장, 주주환원 및 거버넌스 정상화 등 안건 제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FCP는 ‘KT&G 주인있는 회사 만들기’ 캠페인을 공개하고 12월 온라인 주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 대상 소통을 진행했다. 주주설명회 당시 제안한 대표이사와의 공개토론, 이사회 미팅 등이 경영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공식적으로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해 주주제안서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FCP는 인사공사 분리 상장을 제안했다. 담배 업종 특성상 투자가 어려운 기관이 많은 만큼 인사공사가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담배회사에서 인사공사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형태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사공사가 분리되면 약 4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주환원 정상화를 위한 주당 2

만원(배당, 자사주매입 각각 1만원)의 주주환원과 분기배당 및 약 15% 이상을 차지하는 자사주 소각도 제안했다.

이상현 대표는 “KT&G가 현재 보유한 6조원이 넘는 현금화 가능 자산은 지난 15년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은 탓에 쌓인 것”이라며 “KT&G가 2021년에 발표한 주주환원 계획은 현재 보유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잉여금과 적립금을 합산하면 약 7조원에 달하는 만큼 총 2조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주주환원은 절대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변경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재 분기 배당은 연말 및 분기 배당만 가능하게 규정돼 있어 분기 말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분기 말 배당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분기배당은 현재 글로벌 동종기업인 필립모리스, BAT, 알트리아와 국내 삼성전자, SK텔레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등 많은 회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정관 변경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 해당 권한은 이사회에게 있다.

/박미경 기자

현대건설, 작년 매출액 21조… 17.6% 증가

영업이익 5820억… 22.5% 감소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간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누적기준 매출액이 21조 2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2.5% 감소한 4850억원을 기록했다.

신규수주의 경우 35조 42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7% 증가해 연간 목표치 대비 124.9%를 달성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글로벌 풍력·제약사 韓에 8억달러 투자… 다보스서 ‘낭보’

풍력터빈 베스타스, 3억달러 투자
아태지역본부 한국 이전 적극 검토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노바티스
5억달러 규모 투자협력방안 논의

우리 정부가 글로벌 풍력·제약사 3곳
으로부터 8억달러(약 1조원) 규모 투자
를 받을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풍
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사가 3억달러를 투자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
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
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 라이프사이언
스(Merck Life Science)·노바티스(N
ovartis)사도 5억달러 투자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투자 유치 성과는 윤석열 대통
령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투자신고식과 투자자와의 면담을
통한 것으로, 탄소중립과 바이오 등 미
래산업 분야 수출확대와 고용창출, 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베스타스 투자신고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있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헨릭 앤더스 최고경영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단기술의 국내 이전 등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베스타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투
자신고식에서 우리 산업부장관에게 3
억달러 투자를 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베스타스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
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으로, 이번 투자가 한국의 아태지
역 풍력발전 허브 도약과 국내 풍력발

전 보급 가속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가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 시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기업들과의 시너지를 극대
화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앞
서 지난해 11월 22일 장관-베스타스 C
EO 면담 등 투자내용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추후 성공적인 투자이행을 위해
코트라와 함께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19일 진행된 산업부장관과 투자
자의 1대1 면담에서는 독일의 선진 과학
기술 기업인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 스
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 주요 경영진과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머크라이프 사이언스의 마티아스 하
인젤 CEO는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신규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를 검토
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요한 투자 후보
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노바티스의 마리-프랑스 취댕 인터
내셔널 혁신의약품 사장 겸 최고 마케
팅 경영자는 “노바티스가 혁신적 의약
품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환자의 치료
결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에 생
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 의약
품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한 범
부처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한국 정부의 보
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을 설명하고, 노바티스와의 협력 강화
가 바이오 경제 2.0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
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기술·공급
망 등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민관 손잡고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 박차

환경부,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
녹색 산업계·수출 금융기관 동참
2027년 녹색산업 수출 100조 목표

국내 친환경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 잡는다.

환경부는 19일 서울 콘래드서울호텔
에서 녹색 산업계, 수출 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
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
개 기업, 7개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
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술
원 등 대표, 임원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출범식 후 기업과 1대1 전
락회의를 통해 신규사업별 애로사항을
점검,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해외 현
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 산업계, 수출 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환경부

부는 올해 20조원, 오는 2027년까지 누
적 100조 규모의 녹색산업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갖
춰야 할 국가경쟁력이 됐고, 전 세계가
이러한 흐름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
나라 녹색산업계가 ‘친환경 산업’ 선점

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 장관과 함께 박
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녹색
산업계 기업, 기관이 참여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한수원, 다보스서 폴란드와 유럽 에너지 자립 논의

황주호 사장, 관련 토론회 참여
폴란드 대통령과 협력방안 등 논의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폴란드관에
서 개최된 고위급 패널 토론회에 참석
해 ‘유럽의 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세계경제포럼(다
보스포럼)을 계기로 폴란드 정부 주도
로 개최됐다.

황 사장의 토론회 참석은 야체크 사
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
유재산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
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
드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야체크 사신 부총리 겸 국
유재산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보이치에흐 동브로브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폴란드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패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부터), 황주호 한수원 사장, 보이치에흐 동브로브스키 PGE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스키(Wojciech Dabrowski) 폴란드국
영전력공사(PGE) 사장, 그리고 마치에
이 스테츠(Maciej Stec) ZE PAK 이사
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폴란드의 원자력분야 투자 필요

성,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 방안, 양국의
원전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의 원전 개발사 및 노형에 대
한 설명도 있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토론회에서
“폴란드 민간발전사와의 협력을 통해
폴란드내 신규원전을 적기에 건설함으
로써 폴란드의 저탄소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말 폴란드 민
간발전사인 ZE PAK 및 폴란드국영전
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
는 정부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폴
란드 폰트누프 부지에 한국형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과기정통부, 올 디지털 인재 5.2만명 양성

4537억 투입… 작년 대비 500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
(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
지탈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7월 발표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의 본
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
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
화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캠퍼스·네
트워킹형 SW아카데미’는 지난해 대비
650명 늘어난 1250명 양성에 나서며, 기
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협력 구심점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
회와 분과 구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
하며, 온·오프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얼라이언스에서는 기업의 자발
적 인재양성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
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과기정통
부장관 표창, 컴퓨팅 인프라 제공 등 인
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최고 수준의 석·박사 양성도 분야별로
확대한다. 국산 AI(인공지능) 반도체 개
발을 선도해 K-클라우드 확산에 나설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AI반도체 대학
원’ 3개교를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메타
버스·사이버보안 등 주요 디지털 분야
대학원의 추가 선정과 함께 대학 IT연구
센터도 6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지난
해 47개에서 올해 52개로 확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반려견 외출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필수

농식품부, 개물림 사고 등 예방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
야 한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간에
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
을 잡아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인
계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 그
사유를 구체화했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
행되는 ‘동물보호법’에 필요한 법률 위
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
한 반려동물 소유주의 준수사항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2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 소
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
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
치를 달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
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48년 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54층 금융특화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200m이하 1000세대 규모 재건축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운영하고
신설역 예정지에 공공공지도 설치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 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심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3만6363㎡, 588세대)는 197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중 국제금융로변 조성 계획.

/서울시

(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며 “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

뤄,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현재 최고 12층,

588세대인 한양아파트는 최고 200m 이하(층고에 따라 50~54층), 1000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시는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여의도 일대가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만큼 공공기여 시설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금융권 종사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원에 나선다.

아파트 담장으로 막혀있던 ‘국제금융로’와 ‘여의대방로’는 상업·업무가도로로 재조성된다. 시는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신설역(한양아파트역)이 예정된 곳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높이 제한을 최고 54층으로 제시한 것은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북쪽 대교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에 미칠 일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고교학점제 예고에 ‘서열화’ 우려 목소리

교육계 “자사고·특목고 등도 존치
대입경쟁 이어 고입경쟁 이어질수도
귀족학교 통칭되는 학교 정리돼야”

고교 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존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고교 서열화’ 심화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귀족학교’의 부활을 우려하며 교육 당국이 면책성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자사고·특목고 등의 존치로 인해 고교 서열화 심화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교 학점제는 현재 A~E등급의 절대평가가 제안되고 있으며, 일부 공통과목에는 성차등급제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행 대입 제도와 어울려졌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의 위험도가 높아 대입 경쟁에 이어 고입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귀족학교로 통칭되는 학교들이 선행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우수학교, 기숙학교 등을 추진한다든가 특목고를 강화하는 식의 방식은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 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이라고 말했다. 국제학교 등은 흔히 소수의 상류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현 교육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와 닮아 교육 정책 회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이 장관은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자사고 등을 도입시키면서 고교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만큼 고교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고교 학벌’을 강화해 경쟁 교육의 가열이 예측되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입 경쟁의 완화를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라는 바운더

리 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는 확실화시킨다는 협의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빠르게 도입해 현 교육부 설계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통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가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시험 없이 들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 듣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17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국단위 모집 일부 자사고 등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외고·국제고 재편을 주목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명분 쌓기의 미봉책”이라며 “자사고를 존치하면서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교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책성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 한성대에서 열린 디지털 새싹 비전 선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경대학교

학생 3.3만명 ‘디지털 새싹캠프’ 참여 희망

교육부, 초·중·고 학생 대상
대학 등서 1600여개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에 초·중·고 학생 3만3000여명(17일 기준)이 참여를 희망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전국 총 90개의 대학·기업·공공기관에서 16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캠프 운영기관에서는 소

프트웨어 기초 원리 교육, 생활 속 인공지능 체험 실습, 프로젝트 기반 코딩 협력 학습 등 정규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자신의 학년, 개인의 수준·흥미, 원하는 일정·장소 등을 고려해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에 참여한 학생(경기 신흥중·3학년)은 “간단한 코딩을 통해 로봇이 길을 따라 주행하는 실습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고, 캠프를 계기로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 해체 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해체계획서’ 작성, 현장중심 전환

서울시는 해체 공사장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보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을 신고할 때는 직접 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을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가 시작되면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살피도록 점검을 강화한

다.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호서대 식품공학과 연구팀

호서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자의 과잉 염증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천연 생리활성물질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중 과잉 염증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 심한 경우 젊은이도 사망할 수 있다. 특별히, 알레르기 염증반응의 일차적 핵심 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중양과사인자 알파(TNF- α), 인터루킨-6(IL-6) 및 흥선간질질포포이에틴(TSLP)은 사이토

카인 폭풍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약재 백수오의 생리활성물질인 카우다틴(caudatin)이 활성화된 비만세포의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 α , IL-6, TSLP의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규명했다.

이런 연구결과와 ‘Caudatin attenuates inflammatory reaction by suppressing JNK/AP-1/NF- κ B/caspase-1 pathways in activated HMC-1 cells’는 식품 분야 권위 SCIE 국제학술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23년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신하은 기자



유한양행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 필수 상비약
효과빠른 감기약

래피콜®



총합감기약 콜드



총합감기약 에이



코감기약 노즈



목감기약 코프

광고심의필 : 2023-1655-0053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실 :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포항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 실무추진단 구성

김남일 부시장 단장으로 추진단
30개 이상 기업 입주… 조건 유리
포항시 중점전략 산업으로 육성

포항시가 초격차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핵심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포항시는 19일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텍,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이차전지 분야 최적의 인프라가 구축된 포항의 산업 생태계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차전지산업 생태계를 스케일업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1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난해 1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네 번째), 덩 웨이밍 중국 CNGR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 합동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식 공모 일정에 맞춰 유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화단지 선정 시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연구·개발지원, 예비타당성조사면제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공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GS

건설 등 대기업의 이차전지 소재, 배터리 재활용 사업 투자와 산단 내 30개 이상의 전후방 관련 기업이 입주해 이차전지 특화산단으로 입지를 다지는 등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세계 1위 기업인 중국 CNGR과 1조 원 투자양해각서를 맺으며 총 3조 9000억 원 이상의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포항 배

터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포항시의 중점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에 있다.

또한,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가속기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등 집적화된 R&BD 기관의 연구 인력과 폴리텍·마이스터고 등 공정 및 현장 인력까지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지난해 11월 30개 기관이 뜻을 함께하는 ‘경북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하는 등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육성의 요람이 되고, 초격차의 기술 경쟁력 확보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며 지방소멸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어촌계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

영덕군

해양쓰레기 42톤 수거활동

영덕군은 설 명절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해안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설맞이 해안환경 정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해안가와 항 포구, 블루로드 일대 등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정화활동엔 지역의 어촌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오보해수욕장, 경정항, 석리항, 대진항 등지에서 폐어망, 폐통발 등의 해양쓰레기 약 42톤을 수거해 처리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의 해양자원과 환경을 지키고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imjongseol@

울진군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

울진군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청사에서 ‘산불 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 후원으로 피해지 내 산림 복구 조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피해지 산림을 조기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숲(예정지 북면 나곡리 산 79-6번지 일원)은 울진 산불 피해지 내 서울시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 체결로부터 2년간 울진군과 서울시는 산림 복구를 위한 조림 및 사후관리에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울진(경북)=이상호 기자

청송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청송군은 높아져가는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흐름에 발맞추어 2023년도에도 다양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신청을 받는다.

먼저 군은 여성농업인들이 고된 농사로부터 벗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행복바우처 카드 형태로 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20%)이 지원되며, 의료, 사행성 등의 업종을 제외한 전국의 NH농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이 보다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청송(경북)=이상호 기자

전남교육청, ‘소멸위기’ 유아교육 강화

유아교육 기본계획 발표

전남교육청이 소멸 위기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 부담금 경감·교원 인건비보조 지원금을 확대’ 하는 등의 유아교육을 강화한다.

19일 도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교직원, 교육지원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유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학부모 부담금 경감과 교원 인건비보조 지원금을 확대해 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원초우개선비는 지난해 대비 6만원 인상해 교원 1인당 최대 87만원원을 지원한다.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을 신설해 공립 15만원, 사립 43만원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수당’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한다.

공·사립유치원 3~5세 유아 식비는 공립 2300원, 사립 24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소규모화 되고 있는 지역의 유치원 특성을 반영해 놀이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1학급의 작은유치원은 교육계획 공동 수립,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이음교육을 활성화해 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행복안심유치원 30개원과 미래형유치원 20개원을 확대 운영한다.

유치원에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이 구축되며 유아시기의 독서교육, 기후위기대응 생태환경교육, 인성·민주시민교육도 추진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신천지예수교회, 올해 수료생 ‘역대 최대’

제39차 정기총회·유월절 기념예배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5일 열린 ‘39차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이룬 성과들을 재확인하며 올해도 내적 성장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을 다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10만 6186명의 선교센터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교인 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기성교회와 달리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성도 수 온라인 세미나와 온라인 선교센터 운영 등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선교센터는 한 해 동안 국내외 총

3347회(국내 총 1715회, 해외 1632회) 개강을 했다. 이는 10만 명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료생 배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신천지 대세’ 흐름은 국내외 목회자들과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이어졌다. 국내 177건, 해외 3천 760건(지난해 12월말 현재)의 MOU를 체결하며 수많은 국내외 목회자들이 신천지예수교회와 복음 교류 협약에 나섰다.

또한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2차에 걸친 대대적인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코마테크놀로지의 반도체 공정부품 제2공장 투자 양해각서 체결 기념 사진(왼쪽부터 구자근 국회의원, 이철우도지사, 박성훈 코마테크놀로지 대표, 감창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위원장).

반도체 공정부품 공장 MOU

구미 K-반도체단지 ‘성큼’

코마테크놀로지, 소재부품 전문기업
389억 투자, 52명 이상 고용 계획

구미시는 지난 18일 오후 구미시장 상황실에서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코마테크놀로지 박성훈 대표,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마테크놀로지의 반도체 공정 소모성 부품분야 제2공장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투자협약에서 코마테크놀로지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제2공장(1만2000평 규모)을 착공하여 389억 원을 투자, 52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

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마테크놀로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에 필요한 실리콘, 사파이어, 세라믹 부품을 만드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창업 이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정밀기기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부품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보적인 실리콘 부품 제조기술 보유기업이다.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360여 개사나 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경남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경상남도는 올해 56억 원을 지원하여 ▲축사 내·외부 정보수집, 원격 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사료분리 관리, 출하선별기 등 사양관리 ▲생산, 출하관리 등 경영관리와 같은 관리부문별 축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입을 위해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

한다. 신청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정보통신 기술(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로서 작년 예비신청하여 사전컨설팅을 이행하고 있는 103개 축산농가이다.

/경남=김명찬 기자 metrobusan3@

현지화 전략 통했다… 한국, 일본 화장품 수입국 1위 올라

코스맥스 코스메윅크 도쿄 참가
2025년 이바라키현서 공장 가동

아모레 ‘아토코스메’ 온라인 입점
온·오프라인 잇는 O2O전략 전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 2030세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한국 화장품 주문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 MZ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의 대(對) 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이 뷰티 본고장인 프랑스를 제치고 일본의 화장품 수입국 1위에 올랐다.

코스맥스는 일본 현지법인 설립 1년 만에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들어갔다. 코스맥스재팬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코스



지난 11~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코스메윅크 도쿄 2023’에 마련한 코스맥스 부스를 업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메윅크 도쿄 2023’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동일부문 내 최대인 108㎡ 규모 부스를 운영하며 K뷰티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했다. 코스맥스 기술력으로 생산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있는 토종 브랜드들의 제품이 주력이었다. 현재 일본에선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는 K뷰티 제품들이 이른

바 ‘쁘띠프라(쁘띠프라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코스맥스는 전세계 800여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오는 2025년 도쿄 외곽 이바라키현 반도시에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1만6000㎡ 규모의 용지를 계약하고 올해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다. 코스맥스는 현지 생산을 통해 현지 고객사는 물론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해외

객사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어제선 코스맥스재팬 법인장은 “코스맥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일본 시장을 겨냥한 제형과 해외 공장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 소개, 제조자브랜드개발(OBM) 역량을 알린다”며 “이를 계기로 일본의 기존 화장품 업체뿐 아니라 신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잠재고객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지난 해 글로벌 브랜드 라네즈를 일본 ‘아토코스메(@cosme)’ 온라인에 입점하며 일본 공략에 본격 나섰다. 아토코스메는 리뷰 기반의 일본 최대 뷰티정보 플랫폼이다. 또 도쿄 하라주쿠에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아토코스메 도쿄’를 오픈하는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충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O2O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라네즈는 공식 진출 전부터 일본의리뷰 플랫폼 립스(LIPS)에서 ‘네오쿠션’과 ‘립 슬리핑 마스크’가 카테고리 1위에 오르는 등 현지 고객들의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라네즈는 현지에 글로벌

대표 인기 제품인 ‘네오쿠션’과 ‘립 슬리핑 마스크’, ‘시카슬리핑 마스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리브인터내셔널의 뷰티 브랜드 밀크터치는 올 상반기 일본 진출을 본격화하며 자리 잡기에 나섰다. 밀크터치는 일본 로프트와 플라자, 도큐멘즈, 아토코스메 등 대형 멀티 브랜드숍과 드러그스토어 4000여곳의 입점을 시작으로 일본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색조 전문 브랜드 톰앤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패밀리에스씨도 지난해 일본 매출액 294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의 44%를 차지한다.

티르티르의 ‘마스크핏 쿠션’ 라인도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마스크핏 레드 쿠션’의 경우 플라자, 라쿠텐, 립스, 아토코스메 등 주요 뷰티 어워드에서 7관왕을 수상했다. 티르티르는 상반기 ‘Z 세대가 고른 트렌드 랭킹 유행한 코스메 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되며 일본 MZ세대 사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갤러리아, 브랜드 팝업·전시 등 행사 다채

명품관서 25일까지 더일마 등 팝업
루이비통 스페셜 에디션 신발 선행
광고서 캐릭터 ‘미피’ 전시 진행

갤러리아백화점은 설 연휴 전후 다양한 상품 행사와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19일 밝혔다.

서울 갤러리아명품관에서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및 프리미엄 향수 팝업 스토어와 루이비통 슈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더일마, 프리미엄 향수 팝업 스토어 트루동이 25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더일마는 2022 윈터 컬렉션 주요 상품인 시어링 자켓과 베스트를 포함해 비니, 신발 등 겨울 아이템을 판매한다. 트루동은 팝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갤러리아 상품권과 향수 샘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루이비통 슈즈 매장에서는 세계적인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LVXYK 타임 아웃



갤러리아 더일마 팝업스토어

/한화갤러리아

스니커즈’를 비롯한 스페셜 에디션 신발들을 선보인다. 루이비통 슈즈 매장은 지난 12일 처음 문을 열었다.

갤러리아 광고에서는 토끼해를 맞아 네덜란드 유명 토끼 캐릭터 ‘미피’ 전시를 진행한다. 각 층마다 미피 전시와 함께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또 ‘아쿠아플라넷 광고’ 오픈 2주년을 기념해 유아동 브랜드 구매고객에게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2매를 27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증정한다.

대전 타임월드에서는 네스프레소 프

로모션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네스프레소 버추오 머신 패키지 세트 구매 시 최대 13만원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동안 갤러리아백화점 휴점일은 명품관 22~23일, 광고·대전 타임월드·천안 센터시티·진주점 21~22일까지다.

/김서현 기자 seoh@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롯데홈쇼핑 ‘설엔 행운의 찬스’ 특집전

24일까지 인기뷰티 등 집중편성

롯데홈쇼핑이 21일부터 24일까지 단독 패션 브랜드, 인기 뷰티 상품을 집중 편성하는 ‘설엔 행운의 찬스’ 특집전을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은 설 연휴 기간 명절 보복 소비 현상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패션·뷰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

21일 오전 10시 25분 이탈리아 정통

프리미엄 아우터 브랜드 ‘지오스피릿’을 시작으로 지난해 출시 방송에서만 주문액 20억 원을 기록한 독일 패션 브랜드 ‘라우렐’, 2022년 롯데홈쇼핑 히트상품 1위 ‘조르주 레쉬’ 등 단독 패션 브랜드의 구스다운, 니트, 가디건 등 인기 아이템 판매를 강화한다. 피부 개선, 헤어 스타일링을 위한 뷰티·이미용 기기도 집중 편성한다. 21일에는 지난 추석 연휴 70억 원의 주문금액을 기록한 ‘다이스 에어 램’, ‘슈퍼소닉 드라이어’를 ‘윈데이 특집전’으로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인터파크, 설연휴 해외 패키지 3000% 급증

이번 설 연휴 동안 해외 여행 패키지와 항공권 수요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미리 보는 2023 설날 연휴 트렌드’를 발표했다 19일 밝혔다. 올해 설날 연휴기간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항공권 이용률은 전년 연휴 대비 각각 3187%, 3135% 신장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연휴기간이 하루 짧지만 3000% 이상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김서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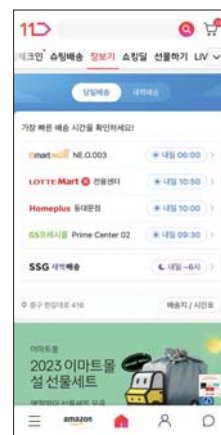
11번가, 설 연휴에도 ‘당일·새벽배송’

설 당일 제외 연휴기간 중 운영

11번가가 19일 당일배송·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오늘장보기 서비스를 설 당일 제외 연휴 기간 중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늘장보기 전문관을 통해 연휴 기간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이마트몰, 홈플러스, 롯데마트, GS프레시몰 총 4곳으로 설 당일인 22일에만 운영을 멈춘다. 새벽배송을 서비스하는 SS G닷컴은 22일, 23일 이탈만 쓴다.

11번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늘장보기 전문관에서 설 맞이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마트몰,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PB 상품은 물론 특별 구성 상품도 모두 판매 중이다.



11번가 모바일 앱(APP) 화면에서 보이는 오늘장보기 전문관 /11번가

각 업체별 주요 행사와 상품들을 한 눈에 살펴본 뒤, 11번가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늘장보기’ 전용 쿠폰도 발급하며 추가 5% 카드할인을 최대 10만원까지 제공한다.

한편, 11번가의 오늘장보기 서비스는 온라인 최초로 국내 모든 대형마트의 장보기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서비스다.

/김서현 기자

오비맥주, 가정시장 점유율 54% ‘1위’

카스 프레시 점유율 41% 달해

오비맥주가 코로나19 사태 종식이 가시화되며 주류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한 2022년에도 국내 맥주시장을 선도하며 ‘국민맥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일 오비맥주 측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류업체들은 지난해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업체들 간 유흥·외식 시장으로 돌아온 소비자들을 잡으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오비맥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여름 성수기인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유흥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53%의 성장을 보이며 시장을 선도했다.

닐슨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가정시장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오비맥주의 주요 제품군.

/오비맥주

53.7%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오비맥주의 대표 제품인 ‘카스 프레시’는 41.3%의 점유율로 모든 맥주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오비맥주는 논란코올 음료시장에서도 제조사·브랜드 부문 모두 1위에 등극했다고 평가했다. 닐슨코리아 11월 가정시장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카스 0.0, ‘호가든 제로’ 등 오비맥주의 논란코올 음료 제품들은 42.7%의 제조사 점유율을 확보하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논란코올 시장을 이끌었다.

/김서현 기자

LG화학, 美 아베오 인수… “글로벌 톱30 제약사 될 것”

항암시장 특화 역량 갖춘 기업
항암 분야 등 4개 이상 신약 목표
신약 파이프라인 美 상업화 가속

LG화학이 20일 아베오 파마슈티컬스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고, 항암 중심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다. 2027년까지 바이오사업에 총 2조원 규모를 투자해 항암, 대사질환 분야 등에서 4개 이상의 신약을 출시하고 글로벌 톱 30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LG화학은 18일 아베오 인수를 위해 미국 보스턴 소재 생명과학 자회사인 'LG화학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LG CBL)'에 약 7072억원을 출자했으며, 20일 최종 인수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아베오는 LG화학의 종속회사로 편입되며, 자체적인 미국 항암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처럼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운영된다. 아베오는 2002년 미



신화철 LG화학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마이클 베일리 아베오 대표(앞줄 왼쪽 다섯번째), 손지웅 사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 양사 임직원들이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설립, 임상 개발·허가·영업·마케팅 등 항암시장에 특화된 핵심 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이다.

아베오는 2021년 신장암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포티브다(FOTIVDA)'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약 출시 2년째인 지난해 1300억원 매출을 돌파했으며,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한 21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증권사들은 포티브다의 매출이 중장기적으로 2027년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베오는 현재 포티브다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 중이며, 두경부암 치료제 등 후속 항암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아베오 인수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항암 시장인 미국에서 항암 분야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과학사업본부가 개발하는 항암신약 파이프라인을 아베오로 이관해 미국 상업화를 가속화한다. 현재 LG화학은 세포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 등을 전임상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이다.

초기 연구 및 생산공정 개발 등에 강점이 있는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유망 항암 물질 발굴, 전임상 및 초기 임상, 상업화 공정개발 등을 담당하고, 아베오가 항암 파이프라인 후기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구조로 항암사업을

운영한다.

미국은 글로벌 항암제 시장(약 250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LG화학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바이오사업 연구개발(R&D)에 총 2조원 규모를 투자해 2030년까지 항암, 대사질환 분야에서 4개 이상의 신약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뇨, 백신, 성장호르몬, 항암제 등 기존사업에서의 매출 확대를 통해 2027년 2조원 매출을 달성하고,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의 판매가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 성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 신화철 부회장은 “아베오를 항암사업 개척 및 성장을 이끌 미래 바이오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해 ‘항암 중심의 글로벌 톱 30 제약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장·두피 마이크로바이옴-탈모 연관성 밝혀 한국콜마 “소재 발굴 앞장”

‘미생물학프론티어’에 논문 게재
결과 토대 탈모 도움 화장품 개발

한국콜마가 장과 두피 마이크로바이옴과 탈모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며 연구결과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

한국콜마는 인체의 장과 두피 마이크로바이옴과 안드로겐성(남성호르몬) 탈모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연구결과를 관련 분야 SCI급 저널인 ‘미생물학프론티어(Frontier in microbiology)’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가장 흔한 탈모 유형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콜마는 이번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장과 두피를 구성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탈모 유무뿐 아니라 진행 단계별로도 장과 두피에 특이적 마이크로바이옴 군집이 형성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을 경우, 정상인 대비 장과 두피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의 상관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

과 두피 마이크로바이옴이 안드로겐성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번 성과는 한국콜마가 2020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장내 균총과의 상관관계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한 결과다. 경북대학교 분자미생물학연구실 신재호 교수팀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기술 및 다양한 생물정보학 기반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콜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적용해 탈모에 도움을 주는化粧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탈모의 원인으로 밝혀진 장과 두피의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소재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신뢰도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탈모 조절이 가능한 소재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도미노피자 설 맞이 전메뉴 포장 할인

도미노피자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기념해 모든 메뉴를 포장 할인하는 ‘설프라이즈’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21~24일 오프라인 및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웹, 어플) 등 포장 주문 시 모든 피자(M/L)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1회 2판까지, 오프라인 1회 4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사이드디시 반값 할인과 900원 딜과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도미노피자는 설 연휴를 맞아 모든 피자의 1+1 혜택을 포함해 새롭게 출시한 아보카도 새우 피자 주문 시 클래식 피자를 1판 더 제공하며, 프리미엄 피자 포장 주문 시 NEW 치즈 볼로네즈 스파게티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서울장수, 해외서 고성장세 수출 실적 연평균 8% 증가

서울장수가 최근 5년간 해외수출 실적 연평균 8% 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탁주제조협회 산하 법인인 서울장수는 2010년 설립과 동시에 해외수출을 시작해 미국·호주·중국·일본·캄보디아 등 30여 개국에 유통기한이 긴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 중이다.

대표적인 수출 효과 상품은 ‘달빛유자’, ‘월매 캔 막걸리’, ‘장흥삼 막걸리’ 등으로 이들 상품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전년대비 각 41%, 101%, 100% 큰 폭으로 신장했다. 서울장수는 특소고 달달한 카테일 콘셉트의 막사(막걸리+사이다) 제품 수출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꾸준한 잇몸관리… 전신질환 위험 감소”

동국제약, 잇몸건강24 캠페인

50대 이상부터 잇몸병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잇몸 건강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잇몸병은 고혈당·당뇨, 만성 스트레스·우울증, 심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염 등의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잇몸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잇몸약 인사돌로 잘 알려진 동국제약은 설 명절을 맞이해 부모님 건강에 필수적인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잇몸건강24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잇몸 건강이 악화되면 잇몸이 붓고 출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치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잇몸의 기본적인 기능인 음식을 잘 씹는 것이 어려워진다.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소화 작용과 영양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또 부모님이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잇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잇몸병은 잇몸 결인 치은(잇몸)에서 발생하여 심한 경우 잇몸 속 치주인대와 치조골까지 파괴된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셀프메디케이션은 ▲올바른 칫솔질하기 ▲치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의약품으로 잇몸 추가 관리하기 등 기본 구강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칫솔질과 치과 검진을 기본으로, 인사돌플러스와 같은 잇몸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세경 기자

한림대성심병원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참가자 모집

생활습관·행동교정 프로그램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고도비만 아동청소년 대상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아이캔(ICANN)’의 참가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아이캔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만 관리를 위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 연세대 연구진이 함께 기획한 고도비만 소아청소년 생활습관 및 행동교정 프로그램이며, 박경희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총 책임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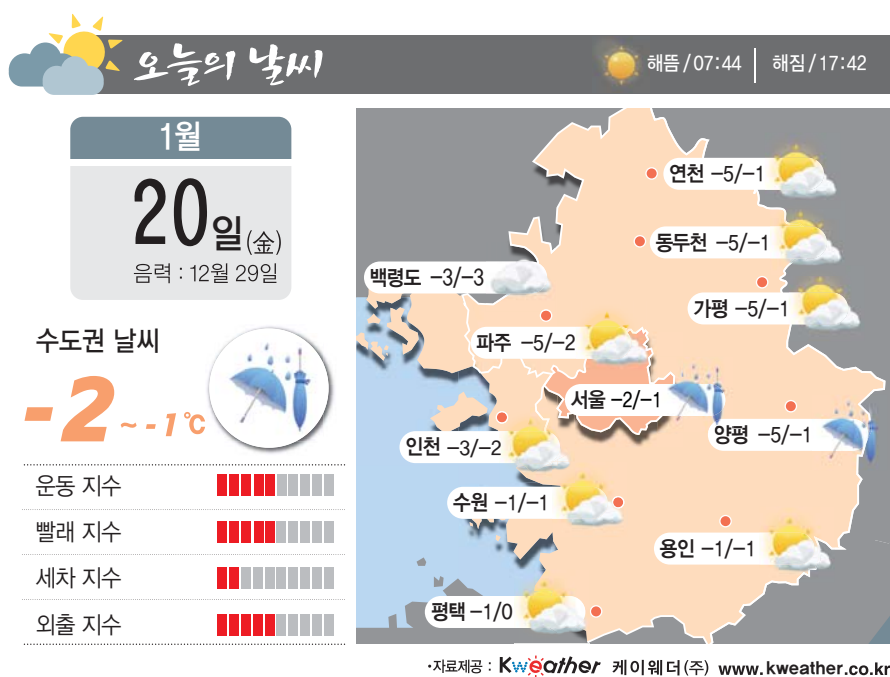
2015년부터 진행된 아이캔은 지금까지 세 번의 프로그램을 통해 총 54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비만 정도

의 감소, 체성분 등 각종 대사질환 지표의 호전을 경험했다.

이번 아이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만10~14세)까지 중등도 이상의 비만 아동 청소년이며,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신체계측, 혈액검사, 생활습관 평가, 영양 평가, 행동 평가, 체력측정 등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위험요인을 진단받을 수 있다. 이후 전문가의 1대1 맞춤 상담을 거쳐 18개월간 앱을 기반으로 한 운동과 영양교육, 생활습관모니터링과 행동교정 등 다양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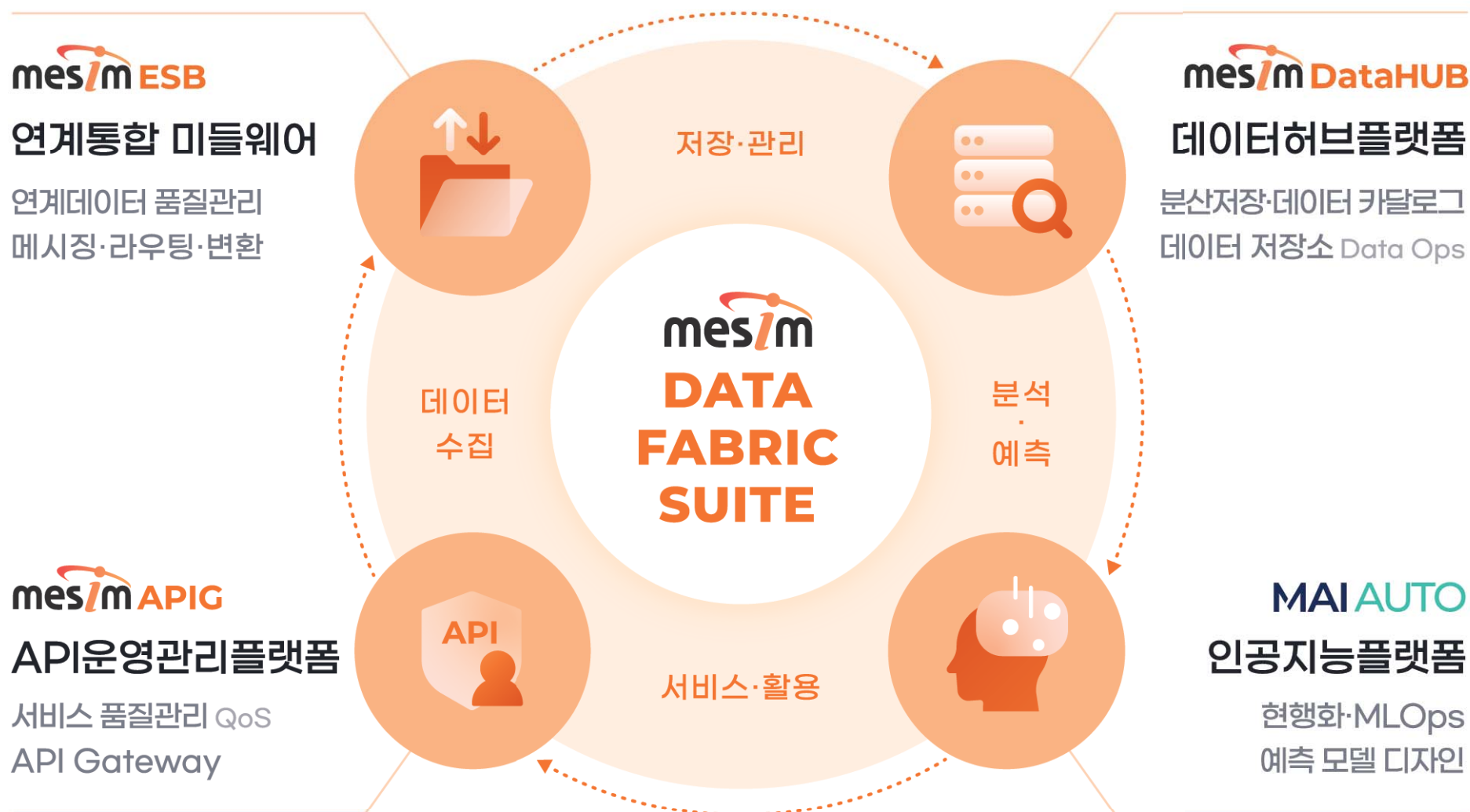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GS칼텍스, 설 앞두고 취약계층에 난방유 3억 지원

GS칼텍스가 설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유 3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GS칼텍스 임직원들은 지난 18일 서울 구룡마을을 찾아 난방유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독거노인 및 이동이 어려운 가정에 직접 난방유를 들고 배달하며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GS칼텍스

아모레퍼시픽

‘사랑의 열매’에 성금 3억 기부

아모레퍼시픽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억원을 기부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기부로 누적 성금 100억원에 도달해 ‘희망나눔 캠페인 1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은 2002년부터 20여 년간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하는 ‘뷰티풀 라이프’ 사업에 성금을 지정 기부해 취약 계층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대한항공, 지역 이웃에 ‘사랑의 쌀’ 3000kg 나눔

대한항공은 18일 강서구청에서 지역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3000kg (10kg 쌀 300포)을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상휘 대한항공 총무부 담당(왼쪽)과 김송자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이 18일 오전 강서구청에서 ‘사랑의 쌀’ 기증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KB증권, 명절 맞아 자립준비청년에 생필품 등 선물

KB증권이 설을 맞이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용품과 간편식을 담은 ‘정(情) 든 KB박스’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KB증권 본사에서 최두희 KB증권 브랜드전략부장(왼쪽부터), 박정림 대표이사, 김성현 대표이사, 노종갑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설맞이 정 든 KB박스’ 전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LG헬로비전, 설 맞아 지역아동센터에 선물 전달

LG헬로비전이 설날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명절음식과 과일로 구성된 ‘마음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만두 빚기’ 어린이 프로그램. /LG헬로비전

다보스 사로잡은 제네시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현대차, ‘제네시스 엑스’ 전시 ‘부산엑스포’ 홍보 차량도 운영

현대자동차그룹이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포럼’에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를 특별 전시하며 ‘한국의 밤’ 행사를 지원했다.

현대차그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밤 행사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호텔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가 부착된 투명 유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안에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를 전시했다.

한국의 밤은 다보스에 모인 각국 주요 인사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비전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 행사이다. 해외 정상을 비롯한 주



각국 주요인사들이 18일(현지시간) 한국의 밤 행사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호텔에 설치된 제네시스 엑스를 관람하고 있다.

요국 정부 및 단체 대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세계적인 석학과 언론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 엑스는 한국의 밤 행사장 입구에 전시돼 행사에 참석한 주

요 인사들과 행사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알리고 한국 자동차의 비전도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다보스포럼 기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다보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문구가 랩핑 된 차량 58대를 운영,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모인 각국 주요 인사 및 현지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알리는 중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산세계박람회 비전에 맞춰 다보스포럼에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18대, GV60 8대, GV70 전동화 모델 4대, 현대차 쏘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5대 등 친환경차 45대를 투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임직원과 21.6억 기부… 누적 300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구성원 꾸준한 참여로 기부금 ↑

SK하이닉스가 임직원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을 나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8일 경기도 이전 본사에서 ‘2023년 행복나눔기금 전달식’을 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1억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복나눔기금은 SK하이닉스와 구성원이 함께 모은 돈이다. 단순 기부는 물론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 혹은 사외 강사로 출강 시 강사료 절반을 기부하는 수시 기부와 함께 회사가 동일 금액을 기부



18일 열린 2023년 행복나눔기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SK하이닉스 김동섭 대외협력 사장, SK하이닉스 김병호 기술사무직지회장, SK하이닉스 김해주 이천노조위원장, SK하이닉스 박노정 대표이사 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 SK하이닉스 고상남 청주노조위원장, SK하이닉스 박용근 이천CPR 부사장.

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했다. 2011년 처음 시작해 누적 297억 원을 모았다.

올해에는 수시기부 금액이 전년 대비 2.1배 증가하며 큰폭으로 성장했다. 수혜 인원도 1만1460명으로

늘었다.

행복나눔기금은 6가지 사업을 통해 고령자와 아동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 GPS와 소프트웨어 교육사업 ‘하인슈타인’, AI 스피커를 지원하는 실버프렌드와 행복도시락 등에 사용됐다.

SK하이닉스는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실천한 구성원도 격려했다. 여러해 변함없는 기부와 봉사를 실천한 우수 기부 및 봉사 수상을 선정해 감사패를 시상했다.

박노정 사장은 “구성원들의 꾸준한 참여 덕에 행복나눔기금이 13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행복을 나누며 이 기금을 우리만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기아, 24번째 ‘그랜드마스터’ 이광욱

누적 판매대수 4000대 달성 “고객과 쌓인 신뢰, 좋은 결과로”

기아에서 24번째 ‘그랜드 마스터’가 탄생했다.

기아는 서울 상암지점 이광욱 선임 오토컨설턴트(사진)가 누적 판매대수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에서 누적 판매 4000대를 달성한 우수 영업직



원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다. 이광욱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1995년 기아에 입사해 28년 동안 꾸준히 판매 일

선에서 실적을 쌓으며 연평균 143대, 누적 4000대를 판매해 24번째 그랜드 마스터에 등극했다.

이광욱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고객과의 진실된 만남을 이어감으로

써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쌓인 신뢰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아는 이광욱 선임 오토컨설턴트에게 상패와 포상 차량(K9)을 수여했다.

기아는 영업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판매 명예 포상 제도’와 ‘기아 스타 어워드(KIA Star Awards)’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인사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김민아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조선경 △교육파견(통일교육원) 유정미 △교육파견(세종연구소) 박선옥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공무원원 전보 및 교육파견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병호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현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김상봉 △국방대학교 안

보과정 교육파견 이남희 ◇휴직복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성곤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국립외교원(파견) 박동주 ◇과·팀장급 전보 △세종연구소(파견) 김미정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박동표

부음

▲김치병씨 별세, 김동규(뉴스1전북취재본부 국장)·동인(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장)씨 부친상, 홍지혜(국제와이즈멘진안마이산클럽 회장)씨 시부상 = 19일

오전 4시, 대송장례식장 2층 VIP룸,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063-274-0815

▲신영철씨 별세, 박상연(충청미디어 편집국장)씨 장인상 = 19일 오전 1시, 청주시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10시30분. 043-291-4444

▲조현수씨 별세, 최태웅(프로배구 현대캐피탈 감독)씨 장인상 = 19일,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 7호, 발인 21일 오전 5시20분. 02-3010-2000

▲안이순씨 별세,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모친상 = 19일, 대전 서구 월평동 성심장례식장 7빈소, 발인 21일 오전 8시. 042-522-4494

KGC인삼공사

설 맞아 독거 어르신 ‘효배달 캠페인’ 진행

KGC인삼공사가 설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한 건강 나눔 사업인 ‘효(孝)배달’ 캠페인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한다.

‘효 배달’ 캠페인은 직원들이 모은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1:1로 매칭해 지원하는 ‘정관장 펀드’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네티즌의 참여로 모아진 금액을 더해 재원으로 사용한다.

마련된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의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용품과 떡국 등 설음식을 준비하는데 전액 사용된다. 여기에 KGC인삼공사가 기부한 정관장 홍삼 등의 제품을 더해 어르신들은 정관장 제품, 설음식, 건강용품 등 온기와 사랑을 담은 ‘종합효도패키지’를 받게 된다.

‘종합효도패키지’는 17일부터 설 전날인 21일까지 순차적으로 배달된다. 정관장 봉사단과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이 함께 만든 명절음식과 정관장 제품, 건강용품이 함께 포장돼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전달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구감소와 대한민국의 붕괴



이 정 희 의

西村브리핑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중국의 인구가 61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 기준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956만명을 기록했고, 1041만명이 숨졌다. 중국에서 한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기록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처음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는 중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4만명으로 1년 전(5164만명)보다 20만명(0.4%)이 줄었다. 2019년 5185만명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커지는 추세다. 2020년 2만명이 감소하던지 2021년엔 19만명이 줄었고 지난해엔 20만명이 감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죽은 사람보다 신생아 울음 소리가 줄어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출산율 감소를 출생아 수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약 26만명으로 2000년 64만명에서 50% 이상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 조사 집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결혼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채 1명도 안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최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래 20년 연속 최저출산 국가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가 됐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고,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쑤코나아이에서 개발한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구 예측 결과 재생산 능력을 잃은 한국 사회는 2020년 약 5100만명에서 2060년 35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더 나아가 2100년에는 인구가 13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적은 인구,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소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2100년에는 현재 대만 인구(2500만명)에도 못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은 사회의 양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 사회의 젊은 층이 감소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한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돌봄 대상이 되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게 다른 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후자를 일컫는 말이 고령화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세계적 고령 국가인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11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간격이 고작 8년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다.

정부는 2005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놔다. 하지만 이 대책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허상을 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를 명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이다.

/linh@metroseoul.co.kr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지 수첩

박 정 익
(정치경제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민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300억달러(약 37조 5000억원)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UAE 정상 공동성명에 명기했고, 총 48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비즈니스포럼 계기 최소 61억달러(약 7조 5000억원) 등 지난 세 번의 해외순방과 비교했을 때도 확연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해외순방 때마다 떨어진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해외순방을 통해 정상 간 회담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

나 국민에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이번 UAE 국민방문도 그렇다. 이렇듯 큰 경제성공을 거뒀음에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는 도중 나온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는 발언 하나 때문에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 당시 일을 떠올릴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날리면’과 ‘이 X X’ 발언 논란은 국내에서 파장을 일으켰지만, 미국 측의 입장 발표 등 어떻게든 수습될 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의 후폭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미국 순방 때와 달리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이에 이란 정부 측이 즉각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음에도

이란 외무부는 주(駐)이란 한국대사를 조치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등 이란과의 외교 관계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수습에 나서야 할 정부여당의 태도도 문제다. 대통령실의 ‘장병 격려 차원’이라든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UAE의 적은’ 한 템포를 쉰 것은 정정의 의미라고 해석하는 등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여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논란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이 밝혔던 역대 UAE 순방 최대 규모의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안정감 있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실수에 대한 빠른 수습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pathfinde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하루**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9		1			
	5	6			
				7	3
		8	1		7
	8	3	7	2	
6			9	2	
5	2				
		8		6	
			4		1

		1	9		8
		6		4	
			8		6
	2				1
			7		4
				9	
		4			6
	1			5	
3					

정답

1	2	9	7	2	9	8	6	3
2	3	9	6	8	9	7	1	2
6	8	7	1	3	2	4	2	9
9	1	8	2	6	7	2	3	9
9	2	6	2	9	3	1	8	7
2	7	3	9	1	8	6	9	2
3	9	2	8	7	6	9	2	1
7	6	1	3	9	2	9	2	8
8	9	2	9	2	1	3	7	6

6	8	2	1	9	7	2	9	3
7	3	2	9	2	8	6	1	9
9	9	1	6	2	3	7	2	8
8	1	9	7	6	2	3	9	2
9	2	7	3	9	2	8	6	1
3	2	6	8	1	9	9	2	7
1	7	9	2	8	9	2	3	6
2	6	3	7	9	1	9	8	9
2	9	8	9	3	6	1	7	2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오늘의 운세 1월 20일 (음 12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체면치레하다가 손실이 커진다. **48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 써라. **60년생** 밤을 이겨내면 찬란한 새벽을 본다. **72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은 필수. **84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생각해라.



소

37년생 겨울은 결코 혼자 웃지 않는 법이다. **49년생** 머리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61년생** 소문난 잔치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다. **73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오니 기대가 크다. **85년생** 오늘날 같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는데.



호랑이

38년생 여행을 떠나면 상비약을 챙겨라. **50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여라. **62년생** 유래 상태 통쾌한 하루. **74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왔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86년생** 마음은 있으나 지갑이 따라주지 않는다.



토끼

39년생 매사에 정성을 다하라. **51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자제해야. **63년생** 작은 것은 포기하고 큰 것을 노려라. **75년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자. **87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용

40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 필요. **52년생** 기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은 과감히 포기. **64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76년생** 부적절한 만남을 경계. **88년생** 사고자 하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뱀

41년생 친구는 소중한 존재이니 잘 챙겨라. **53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65년생** 어려운 일은 배우자의 도움으로 해결. **77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 뜻을 존중. **89년생** 순환계통의 질환이 걱정된다.



말

42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라. **54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우. **66년생** 옛 은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78년생** 적당한 경쟁이 발전의 밑거름. **90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양

43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55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경사가 겹친다. **67년생** 모심으로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79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91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를 하도록.



원숭이

44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56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세탁. **68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다 봐 주는 사람이 없다. **80년생** 의견이 맞지 않으나 양보. **92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닭

4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7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니 좋은 일이 있다. **69년생** 성공을 위해 오늘을 알차게 보내라. **81년생** 자주 만나야 친구간의 정도 있다. **93년생** 무엇을 해도 기분 좋은 날이다.



개

46년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재물이 들어온다. **58년생** 전퇴양반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70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82년생**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94년생** 기도로 심란한 마음을 다져 보는 것도.



돼지

47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59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길을 비켜준다. **7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행복한 날. **83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95년생** 때로는 실력보다 성실한 자세가 중요할 수 있다.

김상회의四季

사주학의 풀이 ⑥

오행五行의 상생相生에서 상생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생을 해주는 오행은 힘이 빠지고 생을 받는 오행은 힘을 얻는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생한다. 반대의 상극相剋에서 극이란 공격하여 파괴한다는 뜻이다.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하여 극을 당하는 오행은 힘이 빠지고 극을 하는 오행도 힘이 빠진다. 천간天干의 충衝과 극剋은 다르다. 갑甲은 양목陽木 을乙은 음목陰木 병丙은 양화陽火 정丁은 음화陰火 무戊는 양토陽土 기己는 음토陰土 경庚은 양금陽金 신辛은 음금陰金 임壬은 양수陽水 계癸는 음수陰水이다.

충衝과 극剋을 구별하는 기준은 방위의 배합에 있다. 동과 서 남과 북처럼 정반대인 것끼리의 관계를 충이라 한다. 동방의 갑甲과 서방의 경庚, 을乙과 신辛, 남방의 병丙과 북방의 임壬, 정丁과 계癸는 정반대 방향이므로 충이된다. 남방의 병丙과 서방의 경庚, 정丁과 신辛은 정반대 방향위가 아니고 남과서의 극으로 화극금火剋金이지 충衝이 아니다. 무기戊己는 중앙에 위치한 토土이므로 충衝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戊는 임壬, 기己는 계癸, 갑甲은 무戊, 을乙은 기己를 극剋한다.

요약하면 천간은 갑경甲庚申 을신乙辛申 병임丙壬申 정계丁癸癸이요 병경丙庚극 정신丁辛극이 된다. 양과 양, 음과 음은 음양陰陽이 배합을 이루지 못하므로 극을 하지만 음양이 다르면 극하지 않고 합을 한다. 오행에서는 목은 토를 극한다고 했지만 음양이 다른 천간끼리는 양목합음陽木合陰土로 합을 하게 되니 합승과 화화에 5가지를 살펴보면 된다. 갑기합토甲己合土 을경합금乙庚合金 병신합수丙辛合水 정임합목丁壬合木 무계합화戊癸合火로 음과 양이 배합한다. 합은 새로운 오행으로 변하는데 변환오행을 화오행火五行이라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1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계묘년 설 와인… 가성비 vs 가심비



안 상 미 기자
Why, wine



(왼쪽부터)롱반 멀롯, 카이첸 인도미토 말벵, 케이머스 코넨드럼 레드, 몬테스 알파 블랙 라벨 샤도네이, 비에티 바롤로 카스틸리오네, 나라셀라

계묘년(癸卯年) 민족 대명절인 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전 부치는 냄새를 풍기며 떠들썩하게 온 가족이 모이는 한 상이든 올해 첫 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을 가든 와인 한 잔이 빠질리 없다.

먼저 고물가 시대에 환영받을 가성비 와인이다. 명절 선물로 주고 받기도, 한 상 차린 식탁에 넉넉히 내놓기기도 편하다.

‘롱반 멀롯’은 2만원대 가격에 한식 과도 두루 어울리는 만능 와인이다. 태생 자체가 그렇다. 이탈리아 북부 출신 와인 메이커 3명이 미국 나파 밸리에서 어떤 음식과도 손쉽게 페어링해 즐길 수 있는 와인을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세운 와이너리니 말이다.

롱반 멀롯은 풍부한 과실미와 함께

삼나무와 가족 등의 풍미도 느낄 수 있다. 오크 숙성으로 복합적인 구조와 함께 여운은 길다. 명절 단골 메뉴인 양념 갈비, 불고기는 물론 매콤한 제육볶음에 족발, 치킨까지 잘 어울린다.

‘카이첸 인도미토 말벵’은 아르헨티나 대표 품종인 말벵으로 만들었다. 카이첸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와인으로 유명한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가 안테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 멘도자 지역에서 만든 와이너리다.

인도미토는 ‘길들여지지 않는’, ‘정복할 수 없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름답게 인도미토 말벵은 우코밸리의 알타미라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로 만들었다. 와인 역시 이런 때루아를 그대로 반영해 야생적이고 강렬한 맛과 향을 지녔다. 산딸기의 향으로 시작해 초콜렛 느낌의 마무리가 잘 어우러진다. 붉은 육류 요리와 같이 마신다면 최상의 궁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케이머스 코

넨드럼 레드’는 진판텔과 카버네소비농, 멀롯 등을 섞어 만들었다. 퍼즐을 뜻하는 와인 이름 ‘코넨드럼’처럼 각 품종의 개성을 지키면서도 블렌딩 와인만의 균형을 맞춘 와인이다. 어떤 품종을 얼마나 넣었는지 알 수 있는 블렌딩 비율은 비밀이다.

코넨드럼 레드는 기본급 와인이지만 출시 직후 두 번째 빈티지가 와인 스펙테이터 88점을 획득할 만큼 품질을 인정 받았다. 진한 과실미에 타닌은 무게감이 있지만 부드러운 질감으로 마시기도 편하고, 닭갈비 등 매콤한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이제 와인잔을, 혹은 선물상자를 받아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심비의 와인이다. 전통이 있고, 유명세를 탄 와인들이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만 마음의 만족은 더 크다.

‘몬테스 알파 블랙 라벨 샤도네이’의 포도밭이 위치한 아콩카구아 코스타는 태평양과 가까워 생동감 있는 과일풍미와 좋은 산도를 가졌다. 깊은 황금빛으로 파인애플, 바나나 등 잘 익은 열대 과일 풍미가 인상적이다. 랍스타, 갑각류

나 파스타 등과 함께 하기 좋다.

‘비에티 바롤로 카스틸리오네’는 이탈리아 바롤로 지역의 네비올로 품종 100%로 만든다. 작은 포밭들에서 선별돼 수확된 포도만을 사용한다. 붉은 루비색으로 땅에서 느껴지는 흙과 미네랄 향이 풍부하다. 필요한 힘은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내세우지는 않으며 복합미가 뛰어나다.

‘파 니엔테 샤도네이’는 미국 나파 밸리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와이너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을 선사하는 와인이다. 와이너리 이름 파 니엔테가 라틴어로 바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란 의미다. 부드럽게 그을린 오크 풍미가 풍부하고 둥글게 모아지는가 하면 단단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로 균형감도 뛰어나다. 바로 마셔도 신선한 과일 느낌과 안정적인 균형감이 돋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감과 무게감, 깊이가 더해진다.

/smahn1@metroseoul.co.kr

NARA
CELLAR

자료 협조



주말은 책과 함께

동·서양, 사고방식이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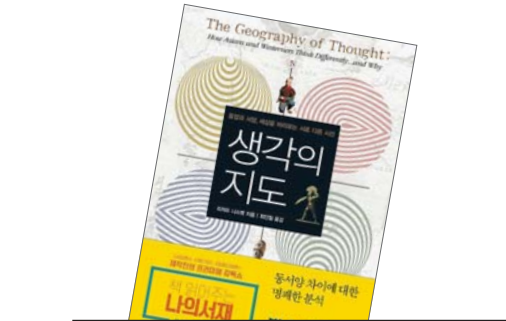
중국 서부의 한 사막에서 수천 년 정도 된 유해들이 나왔다. 키가 크고 머리카락색이 붉은 서양인들이었는데 생김새 말고도 그곳에 사는 종족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발견됐다. 그들 중 몇몇의 몸에 선명한 수술자국이 남아 있던 것이다. 서양과 달리 당시 중국에서는 수술이 매우 드문 일이었다. 왜일까.

‘생각의 지도’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른 이유를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중국인들이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조화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들의 사고에 비춰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와 중국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 구조가 매우 달랐다. 흥미로운 건 그 갭이 현대를 사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책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했다. 올림픽이 열릴 때가 되면 그리스인들은 선수나 관중으로 참가하기 위해 벌이고 있던 전쟁마저 중단했다. 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는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타 문화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와 달리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중국인들은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도록 수양하는 일을 중시했다. 중국의 핵심 도덕인 유교에 따르면 인간은 군주와 백성, 부모와 자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 지음/최인철 옮김/김영사

식, 노인과 젊은이 등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관계적 존재다.

책은 고대 그리스와 중국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긴 이유로 지리적 특성과 생태적 환경을 꼽는다. 해안가에 위치해 무역을 중요한 산업 수단으로 삼았던 그리스는 다른 사람, 다른 사고, 다른 민족, 다른 종교의 접촉이 빈번했다. 때문에 이들은 A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인 Not-A를 주장하는 사람도 자주 접해야 했다. 반면 고대 중국은 문화적 동질성이 매우 강했다. 중국인의 약 95%는 한족 출신이며, 50여개가 넘는 소수민족 거의 대부분이 서부에 한정돼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부가 아닌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은 다른 풍속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저자는 “‘문화 차의 미래’에 대한 가장 타당한 견해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의 문화를 수용해 중간쯤에서 수렴될 것이라는 의견”이라며 “통합된 문화가 동양과 서양의 가장 좋은 특성들만을 모아놓은 걸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한다. 1만2900원. 248쪽. /김현정 기자 hjk1@

인간 같은 동물, 동물 같은 인간

이정전 지음/여문책

동물원에서는 물을 채운 해자로 둘러싸인 섬에 유인원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자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고 시도한 유인원에 대한 보고가 다수 있다. 저자는 어미 침팬지가 실수로 떨어뜨린 새끼를 구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던 수컷 한 마리가 목숨을 잃은 인간 같은 동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책에는 동물 같은 인간의 사례도 나온다. 미국 그랜드캐니언 부근의 대형 동물들이 멸종한 시기는 이 지역에 수렵인들이

도착한 시기와 일치한다. 책은 동물이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인간이 실상 동물과 비슷하다는 점을 일깨우며 동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공존을 위한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88쪽. 1만8000원.

착한 소셜미디어는 없다

조현수 지음/리마인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인류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주장과 달리 돈을 버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소셜미디어가 많아지면서 민주주의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기업은 수익을 위해 자사 소셜미디어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혐오, 가짜뉴스를 방치했고, 이런 SNS의 어두운 면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면서도 뒷집만 지고 있다. 책은 소셜

미디어의 문제가 무엇이며, 가짜뉴스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그 실상을 낱알이 까발린다. 가짜뉴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슬기로운 소셜미디어 생활을 위한 안내서.



192쪽. 1만3800원.

메이지의 그늘

이찬수 지음/모시는사람들

책은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제시한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을 가져와 일본이 동아시아 일대를 전화(戰禍)로 내몰고 수백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킨 행위를 행하고서도 오늘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불관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 문제에 관한 한 사고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과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지 못하는 판단력 결핍’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력 결핍증에 빠진 이유는 메이지 이래 ‘일본 영광론’을 한 번도 떨쳐 버리지 않았던 ‘일본국의 근대 사상, 철학, 정교, 문화’에 두루 걸쳐 있는 ‘메이지의 그늘’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232쪽. 1만4000원. /김현정 기자



버스타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통일부, 北인권실태 조사 민간단체 공모…“하나원 입소자 대상 활동” /사진 뉴시스
▲기대심리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도 줄었다

▲김만배, 임직원 성과급 형태로 범죄수익 은닉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에 징역 20년 선고…“준강간 사망 암증 처벌”



▲‘형령 증거인멸 시도’ 혐의 빗썸 관계사 임원 1심 실형
▲법원 “‘M&A무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230억 지급해야” /사진 뉴시스

2648만명 대이동... 서울~부산 8시간40분, 귀성 내일 혼잡

〈오전〉

연휴 日 평균 530만명 이동 예상
짧은 귀성기간, 귀경보다 시간 ↑
귀경길은 22일·23일 집중 전망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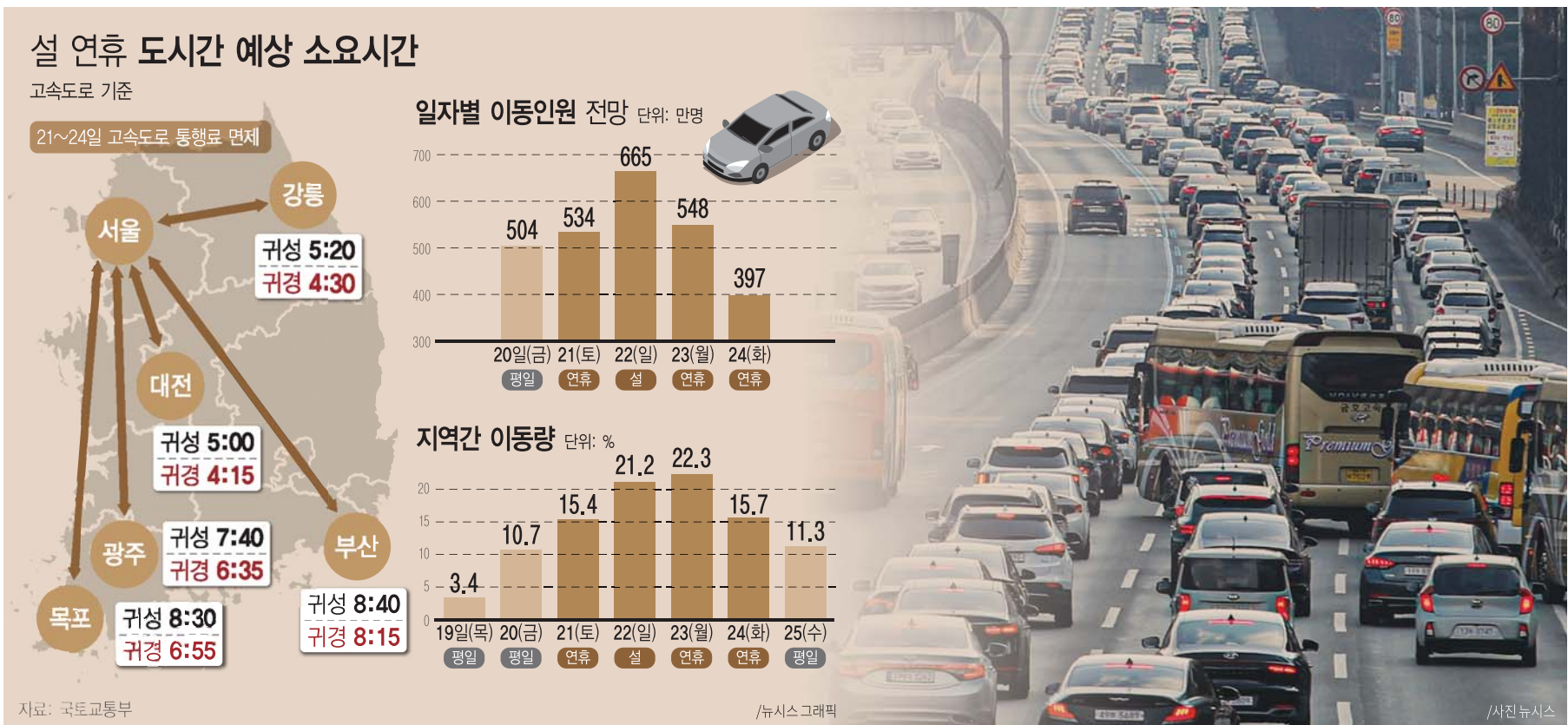
올해 설 고속도로 귀성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이 8시간 40분가량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은 설 전날인 오는 21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3년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91.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속도로 최대 귀성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4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 서울~대전 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의 경우 부산~서울 8시간 15분, 목포~서울 6시간 55분, 광주~서울 6시간 35분, 강릉~서울이 4시간 30분, 대전~서울 4시간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은 설 전날인 21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22일)과 설 다음날(23일)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교통량 분산으로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3.5km)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개통되고,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남광산나들목(IC)~남장성 분기점(JCT)(9.7km) 구간이 신설·개통된다.

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21.5km)이 신설·개통되고,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22.55km)이 임시 개통된다.

경부선 서울 요금소(TG)~안성 나들목(IC)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1208km)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IC, 성남)~태전 나들목(IC, 광주) 등 국도

19개 구간(223.4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고속도로 53개소 92개, 국도 43개소 137개)해 교통량 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인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간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아울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22일과 23일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서울, 인천, 공항철도 등)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신권 깜빡했다면... 은행 이동식 점포로 GO “고향 가기 전 보험사서 車 점검 받으세요”

시중銀,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재개
신권 인출·교환, 계좌이체 등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두 번째 명절이 돌아옴에 따라 은행들이 이동식 점포 운영을 재개한다. 올해 귀성길은 지난해 추석 때 이동식 점포 운영에 소극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21일 이동점포 운영을 통해 신권 교환 및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농협·우리·하나·KB국민·신한)은 모두 이동식 점포 운영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오는 20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하나은행 이동형 자동화기기(ATM). 하나은행

4시 닫는다. 신권 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또한 20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 운영을 재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 교환과 자동화기기를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하행선)에 이동점포를

배치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출금거래와 계좌이체, 신권 교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하행선)에 이동식 점포를 마련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권 교환 업무를 돕는다.

신한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휴게소(하행선)에 이동식 점포를 선보인다. 20일부터 양일간 신권 교환 및 입·출금, 예금상당, 통장정리 등을 제공한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부산은행은 오는 20일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또한 같은 날 정읍휴게소(하행선)에서 신권 교환을 지원한다.

한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은행들이 이동점포 마련을 결정한 만큼 고객들의 편의성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주요 손보사, 코로나 확산 우려에 휴게소 내 임시 정비소 운영 안해
보험사별 정기점검 서비스 권장

설 명절에 고향을 떠나기 전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주요 손보사가 귀성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아서다. 다만 DB손해보험은 전국 프로미카 월드에서 명절맞이 특별 차량 점검을 제공한다.

명절맞이 차량점검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등 25개 항목으로 구성해 성능 점검과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가지 점검과 살균탈취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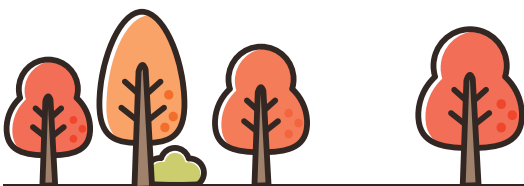
손보사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 휴게소 내 임시 정비소 개설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량을 맡기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정비 업무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업계는 각 보험사별 정기점

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엔진오일, 제동장치, 배터리 점검 등 경정비는 매년 모든 손보사가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출동 서비스 사용을 위해 가입한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사용 방법 숙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 경정액 제고 차원에서 차량 점검 서비스 운영에 나설 수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우려돼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정기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대규모 파업...항공·대중교통 등 마비 /사진 뉴스시
▲ 홍콩, 30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 '5일 격리의무' 폐지

▲ 日스가 前총리, 현 총리에 거둬 쓴소리... '반 기사다 색' 강화
▲ 美 테크기업 줄줄이 '칼바람'... 6만명 넘게 해고



▲ 美, 北 '핵보유' 강조에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 /사진 뉴스시
▲ 대만 외교부장 “中 2027년 무력 침공 가능... 대만 희생양 될수도”



[라이프]
현지화 전략 통했다
일본서
화장품 수입국 1위
L1

metro®

Life

[바이오]
LG화학
美 아베오 인수
톱30 제약사 도약
L2



농구화... 록커의 신발... 스트릿패션 ‘10억 켄레’ 신화 쓴 세계인의 패션템

메가하이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컨버스 ‘척테일러 올스타’

1917년, 캔버스 농구화 ‘올스타’ 출시
농구선수 출신 세일즈맨 ‘척 테일러’
美 전역서 농구교실 열며 열풍 일으켜
록밴드·배우 착용에 세계적 인기 이어가
패션 브랜드와 컬래버로 마니아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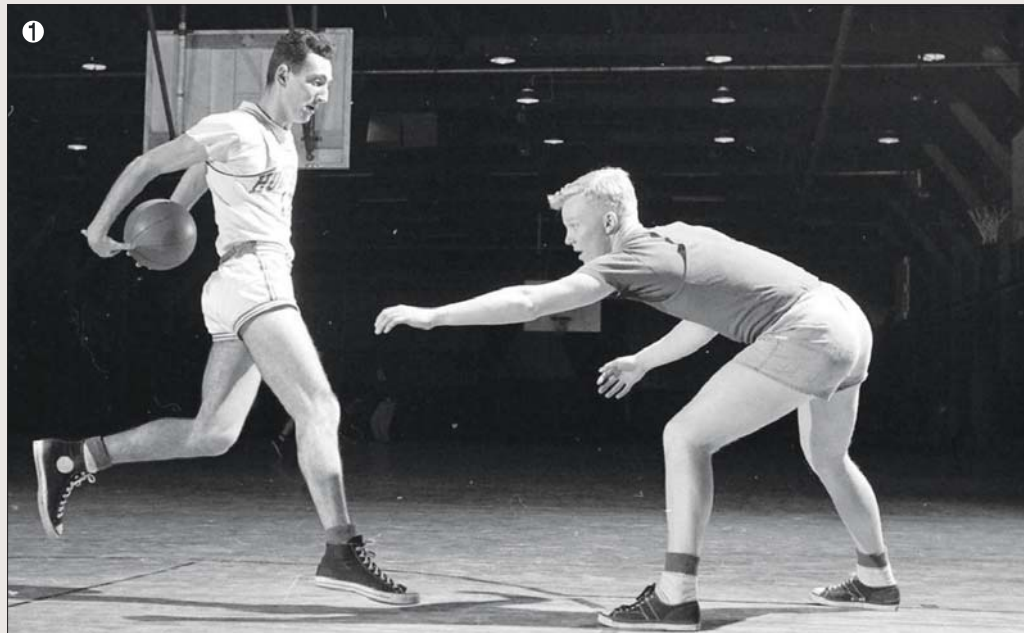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켄레 가진 신발이 있다. 캔버스의 ‘척테일러 올스타’다.

운동화라는 말에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에 다양한 색깔까지 갖췄다. 가벼운 차림에도 과감한 믹스 앤 매치 패션에도 포인트가 돼 패션을 위한 ‘기본템(기본적인 의류 아이템)’의 대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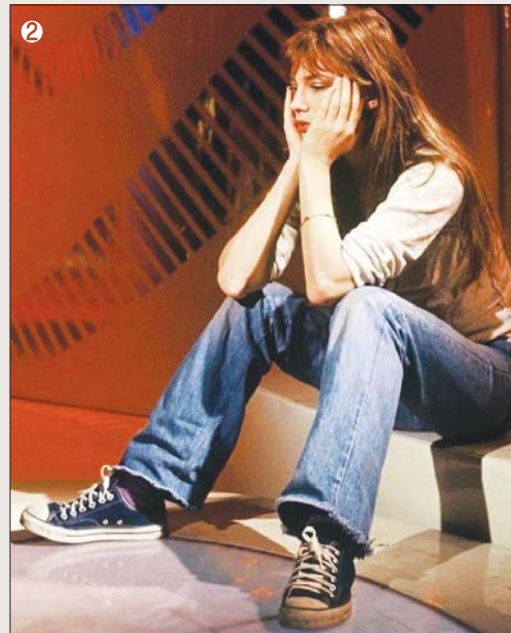
놀라운 것은 역사다. 캔버스 척테일러 올스타가 처음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인 1917년이다.

척테일러 올스타는 1917년 캔버스에서 ‘논-스키드’라는 이름의 캔버스 농구화로 출시돼 1920년 ‘올스타’로 이름을 바꿨다. 올스타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1922년 입사한 찰스 H. 테일러(1901-1969), 일명 ‘척 테일러’가 시카고 지사의 세일즈맨으로 입사한 후다.

한때 농구 선수였던 척 테일러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고등학교 등에서 농구 교실을 열고 여기서 올스타를 홍보했다. 여기에 더해 ‘컨버스 배스킷볼 이어북(Converse Basketball year book)’을 출판해 전국·지역 남녀 농구



① 1922년 캔버스에 입사한 영업사원 찰스 H. 테일러는 미국 전역을 돌며 농구교실을 열며 올스타 척테일러를 홍보했다. 그의 세일즈 전략이 성공하면서 캔버스는 올스타의 이름을 ‘올스타 척테일러’로 바꿨다. ② 프랑스 배우 제인 버킨이 선보인 블루진과 캔버스 패션. /shoe palace·pixabay



팀 시합의 결과를 신었다.

척 테일러의 영업전략은 대성공을 거뒀다. 사람들은 신발 가게에서 ‘컨버스 올스타’ 대신 ‘척 테일러가 파는 신발’을 찾을 정도였다. 급기야 1934년 캔버스는 ‘척 테일러 올스타’로 이름을 바꿨다.

척테일러 올스타는 농구화의 전형으로 자리잡은 후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에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까지 ‘공식 슈즈’로도 지정된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가 치솟은 것은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캔버스는 미군에 보호용 신발, 부츠, 파카, 장비를 지원했다. 이때 척테일러는 공군 기술 지원 사령부에 입대하고 캔버스 이어북에 군인들이 농구로 체력에 관한 기사

들을 쓰기 시작했다.

1946년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미국 내 농구 열풍과 정부와의 계약 유지는 본격적으로 캔버스의 대대적인 성장을 끌었고 이때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1950년대 척 테일러는 세계 전역을 돌며 농구교실을 열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로 척테일러 올스타의 위상을 올렸다.

척테일러 올스타를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도록 이끈 세일즈맨 척 테일러가 1968년 은퇴 후 이듬해 사망한 후에도 인기는 식지 않았다. 척 테일러의 사망 후 캔버스는 최고의 록밴드 중 하나로 꼽히는 ‘AC/DC’ 프론트맨 앤거스 영과 펑크록의 시조 ‘라몬즈’의 사랑을 받으며 대중의 인기를 모조리 흡수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 여배우 제인 버킨이 무

심한 듯 가벼운 패션을 선보이며 청바지에 검은 올스타 척테일러를 매치하면서 반항아적인 이미지와 동시에 파리지엔의 프렌치 시크 이미지까지 얻었다. 이때부터 척테일러 올스타는 최고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척테일러 올스타의 총 판매량은 약 10억 켄레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 된 세월과 180개국에 달하는 판매국가의 수 탓에 지난 100여년간 최소 10억 켄레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캔버스는 2020년대에도 폼페가르송은 물론 오프화이트 등 수많은 패션 의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내며 마니아들을 열광케 하고 있다. 한정 판매가 이어지면서 척테일러 올스타 마니아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벤투 후임 거론된 보르달라스...관건은 ‘한국살이’ /사진 뉴시스
▲학생선수 ‘결석허용’ 최대 4배 늘린다...“체육계 의견 반영”

▲방탄소년단, ‘후즈팬덤상’ 수상...3년 연속 수상
▲한국 게임 가장 오래 이용하는 곳은 중동·서남아시아



▲MLB 보스턴, 거포 외야수 듀발과 1년 86억원 계약 /사진 뉴시스
▲카타르월드컵의 기록...결승전 15억 명 시청